

포퓰리즘 추방 言論이 나설때다

大韓言論 300호 기념 '한국의 포퓰리즘 대 토론회'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복지논쟁과 열로 여·야 간 무상복지 공약경쟁이 중요한 대선쟁점으로 떠오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따라서 진보는 보수는 포퓰리스트들이 미디어를 통해 감성 자극적인 언어로 적과 아군을 가르는 식의 이분법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이기심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됐다. 포퓰리즘에 편승, 언론자유를 벗어난 사이버 언론행위에 대해선 전직 언론인들의 최대단체인 대한언론인회를 비롯한 언론 관련 사회단체와 언론 학자 등 전문가들이 순수 민간차원에서 감시, 견제, 제재하는 적극적인 언론개혁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대한언론인회는 3월 28일 오후 2시 서울중구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후원으로 '한국의 포퓰리즘' 주제의 대한언론 300호 기념 특별 대토론회를 가졌다.

문명호 전 동아일보논설위원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앞서 후원기 회장은 "요즘 우리 사회에는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어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를 보는 정치권과 언론 역시 보수와 진보로 엇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포퓰리즘 정치와 언론보도 자세를 집중 진단하고 그 치유책을 찾아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대한언론인회 선배님들이 포퓰리즘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과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언론이 그러했듯이 앞으로 우리가 맡게 될 세계화 선진화 과정에서도 언론이 필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열기로 가득찬 토론회장

정책 실명제로 끝까지 책임추궁 시민 사회단체 정치권 감시 중요



인사말 하는 후원기 회장

드린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주제발표는 남시욱 교수(세종대 석좌교수·전문화일보 사장 : 제1주제 '한국정치의 포퓰리즘')와 심재철 교수(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제2주제 '우리 사회의 포퓰리즘과 언론')가 맡고 토론자로 성병욱(전 중앙일보 주필) 신대근(전 대구MBC사장) 최희조(중부대 초빙교수·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최홍재(공정언론 시민연대 정책위원)씨가 참여했다.

남시욱 교수는 제1주제 발표에서 "현 단계에서 주목할 사실은 2012년 총선과



축사하는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대선을 앞두고 어떤 양상으로 복지논쟁이 벌어질 것이냐"라는 점이라며 복지논쟁 과열을 우려, 경계 했다. 그는 "포퓰리즘이란 원래 국민이 돈을 덜 내고 더 받게 하는 정책"이라며 "결국 그것은 국가부채가 되고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 안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야는 성장과 복지가 조화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찾는 노력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 발표에서 심재철 교수는 "우

리 언론은 인내하기 어려운 논리를 전개하며 종종 사회현실을 오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확한 보도는 사실보도의 핵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피해에 관한 TV보도를 하면서 '다우니' 소에 대한 화면을 삽입하는 것은 시청자에게 의도적으로 환상적 상관관계의 오류를 범하도록 부추겼다는 의혹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은 사회이슈로 떠오르는 사안에 대한 갈등해결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에 나선 최희조 교수는 "일각에서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 독재정부'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 수 없다"며 "오히려 언론자유를 남용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오도하는 일체의 언론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순수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언론개혁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결론적으로 포퓰리즘 행태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실명제를 활성화 하여 입안,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견 및 행위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을 확인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유혹을 뿌리치도록 국민의식이 깨어나야 하고 시민 사회단체의 정치권에 대한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행태, 또 공약 남발이 문제이지만 우리 언론이 제대로 정도를 지켜 그 해독을 경계하고 없애는데 보다 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계 원로들의 단체인 대한언론인회가 포퓰리즘적인 행태 또는 문화를 깨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공감하였다.

2·3·4면에 주제 논문 및 토론내용



大韓言論 300호 축하연 歷代 편집책임자에 공로상

토론회 종료 후엔 프레스센터 19층 매화 홀에서 대한언론 300호 기념 축하연도 열렸다. 후원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역대 대한언론(구 대한언론인회보) 편집책임자와 광고담당자에게 공로상(부상 고급 커피포트)을 수여하고 그간의 공로를 치하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김광희 김성배 맹태균 성낙오 신우식 오근영 이대영 이배영 이혜복 최귀조 최병욱 (이상 편집) 황귀근(광고)

한편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 한국방송협회(회장 김인규) 자유선진당(대표 이회창)은 대형 화환을 보내왔다.

내년선거 복지공약 경쟁 과열 우려

大韓言論 300호 기념 ‘한국의 포퓰리즘’ 대토론회

이승만과 박정희의 엘리트주의적 정책

정치인들이 개인적 인기를 위해 대중 영합적인 정책을 쓴 예는 한국 정치사에서 상당히 많다. 대통령선거 때 어김없이 등장해 허풍선 공약을 하는 일부 군소정당 후보의 경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들이 지역차원에서 황당한 공약을 내거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주류 정치인과 중요정당의 인기영합적 무책임한 포퓰리즘은 그 해독이 크다.

한국의 포퓰리즘을 논할 때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인기를 의식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속성상 포퓰리스트와 포퓰리즘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정치 행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어떤 통치자가 올바른 정책으로 인기를 얻는 것은 정치가로서 당연한 것이며 비록 그가 국민들의 인기를 노리거나 의식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국가 전체의 이익, 특히 국가장래를 위해 타당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가질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어떤 정책이 정치가 개인이나 소속 집단의 정치적 인기를 노린 사탕발림의 선심성 공약인가 여부에 있다. 포퓰리즘에 흐르는 정치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재정팽창적이며 또한 부유층에 세금을 증가해서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재분배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하위층의 인기를 배경으로 기존 질서를 부자들을 위한 체제라고 공격하는 수법도 동원한다.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은 혁명이나 이에 준하는 정치적 격변기에 잘 등장한다. 한국에서도 8·15직후 건국시기와 5·16혁명, 4·19, 그리고 5·18 신군부 쿠데타, 그리고 5·10 민주화과정 등 정치적 격변기에 여러 종류의 포퓰리스트가 등장할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초기의 통치자들, 즉 이승만과 박정희는 포퓰리즘과 거리가 있는 지도자들이었다. 개인적 카리스마가 강했던 이승만과 박정희는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이들 두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당장의 인기와 좌우되지 않는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때로는 국민들의 인내와 고통을 요구한 소신의 정치가였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각각 건국운동과 근대화 혁명에 앞장선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포퓰리스트와 반대되는, 자신의 국가적 비전과 경륜과 합리주의에 확신을 가진 엘리트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민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보다는 이에 거슬리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밀어붙인 엘리트주의자였다. 이승만이 빈곤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을 강행 도입하고 연구용 원자료를 도입해서 원자력개발의 테이프를 끊고 미국의 의사에 반하면서 반공포로를 석방한 것이 그 예이다. 박정희의 경우는 단기 연호를 폐지하고 서기 연호를 도입하면서 일반국민들의 관습과 정서를 잘 알면서도 과감하게 이중과세를 급한 조치들은 그의 합리주의적 사고

방식의 결과이자 포퓰리즘과 반대되는 통치스타일이었다.

후기 정부의 인기영합정책

박정희에 이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군권과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 정권은 집권과정의 정통성 결여로 사후에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중과세를 사실상 부활한 인기영합정책을 서슴지 않았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당시까지 양적과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성객의 불편을 이유로 구정을 ‘민속의 날’로 정했다. 고령인구 급증으로 언젠가는 제조정할 수밖에 없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효승차제도 역시 전두환정권 때 도입되었



제1주제 발표를 하는 남시욱 교수

중하게 추진해야 할 극히 미묘한 문제인데도 노무현은 자주국방의 준비도 없이 이를 서둘러 단행하고 말았다. 자주국방과 민족주의라는 대중적 감정과 정서가 정책의 합리성을 압도한 것이다. 이 같은 정치행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정치라 해야 할 것이다.

‘서민’과 ‘분배’를 지나치게 강조한 노무현은 지나친 분배우선정책과 노조비호,

지난 정권때 분배위주 人氣영합 절정 성장과 조화되는 합리적인 정책 절실

다. 전두환 정부의 또 다른 선심정책은 농가부채 탕감의 전주곡인 대출금의 이자 경감조치였다. 전두환을 이은 노태우정부는 구정을 ‘설날’이라고 격상시킴으로써 완전히 이중과세를 제도화했다.

김영삼 대통령 당시의 대표적인 포퓰리즘은 원화가치방어를 위한 저환율정책의 유지를 들 수 있다. 당시 김영삼정부는 수출신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원화가치를 높여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유지함으로써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까지 낮은 환율을 유지했다. 당시 정부의 영성한 경제정책은 결과적으로 국가부도 직전의 위기에 내몰리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 때의 인기영합정책의 예는 카드 남발이었다. 김대중은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얼마 후 경제가 침체하자,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남발케 하는 정책을 폈다.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 400만, 가계부채 300조원이 발생했다.

노무현정부의 포퓰리즘

노무현 대통령의 재벌해체와 재벌총수와 그 일족의 주식을 국가가 사들여 노동자에게 배부하자는 발언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예이다. 당시 일부에서는 노무현의 이 같은 태도를 ‘포퓰리즘과 사회주의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2002년 대선 때 행정수도를 충청지역에 건설하자는 그의 공약은 본인도 “좀 재미를 보았다”고 말할 정도로 처음부터 포를 의식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알려진 바로는 당초 노무현은 선거운동본부에서 충청권 득표전략으로 행정수도 공약을 건의하자 “누구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 작정이냐”고 필적

일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도 전임정권에 못지않은 대중의 인기를 의식한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분배 중시 정책을 쓴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달리 작은 정부와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세금인하,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내세웠으나 치솟는 포퓰리즘에 흐르는 친서민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친서민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결국 서민 농민 노인 부동산 교육 고용 정책에 전임 좌파정권과 별 차이가 없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무상급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록금 상환제, 대기업의 대형마트 규제 등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서 주장해 왔던 포퓰리즘 정책들을 친서민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당초 공약했던 조세감면계획을 부자감세라는 야당 공세에 밀려 후퇴하고 국민연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 우파적 개혁을 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현정부 3년 동안 국가부채는 1백조가 늘어나 4백조에 육박함으로써 그 규모가 국내총생산(GDP)대비 34%에 달했다.

결론

현 단계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어떤 양상으로 복지논쟁이 벌어질 것이냐는 점이다. 만약 복지논쟁이 과열되어 여야 간에 무상복지 공약경쟁이 중요한 대선 쟁점이 된다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포퓰리즘이란 원래 국민들이 돈을 덜 내고 더 받게 하는 정책이다. 결국 그것이 국가부채가 되고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안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태국의 탁신 전 총리가 국가부도 위험을 외면하고 쫓던 포퓰리즘 정책의 맛을 태국 국민들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탁신은 농가부채를 3년간 유예하고 모든 국민이 30바트(1050원)만 내면 기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감소를 위한다면 농촌 마을마다 100만바트(3천5백만원)씩 나누어주었다. 정치인들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지나친 복지정책으로 경제가 비틀거리는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은 절대로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우리가 복지논쟁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의 사회복지예산(2010년 기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꼴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분단국가로 북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복지에 대한 요구를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지만 여야간 인기를 노린 복지공약 경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야는 성장과 복지가 조화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찾는 노력을 다 같이 벌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국무]

정확보도 외면 사회현실 誤導 심각

大韓言論 300호 기념 ‘한국의 포퓰리즘’ 대토론회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탐사 보도는 1987년 6월10일 국민대항쟁의 결정적 촉매 역할을 한다. 이어 한국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반이 되는 6·29 선언으로 이어진다 (심재철·이경숙, 1999). 그 이후 반체제 인사와 운동권을 포함한 재야 시민세력이 정당정치 전면에 나서게 된다. 더불어 특정 신문을 타깃으로 하는 안티 신문 운동이 벌어진다. 이들은 동아, 조선, 중앙일보와 같은 권위적 엘리트 신문이 지속적으로 사회의 제를 설정하며 국민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막강하게 발휘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혁신적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들 엘리트 신문의 “보수적 논리를 깨 부숴야 마땅”하며, 이들 신문의 절대적 영향력을 삭감시킬 수 있는 매체 비평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국내에서 이러한 미디어 비판 운동의 원조 격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강준만을 꼽을 수 있다. 그는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김대중 죽이기>란 저서를 출판한다. 이 책은 1994년에 출판된 후 30만부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한국 현대사에 빼 놓을 수 없는 정치가인 김대중에 대한 편견적 이미지가 보수 신문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강준만 교수의 문제제기방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은 한국 언론사의 비논리적인 스토리텔링 방식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뉴스 프레임과 패키지에 대한 국내 최초의 미디어 비평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치 뉴욕타임스를 매소(賣笑)저널리즘의 전형이라고 몰아 붙였던 엠폰 싱클레어를 연상케 한다. 강준만은 국내 여론을 좌지우지 해 왔던 보수적 언론인에 대한 과일을 만들어 이들이 쓴 칼럼을 모아 두었다. 이들 보수적 칼럼니스트가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르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여지없이 폭로하는 방식으로 논박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논리전개는 1인 저널리스트로 불리는 콘래드 스테인이 자주 이용했던 방식이다. 강준만의 <김대중 죽이기>란 책 제목도 버클리대학의 탐 골드스테인 학장의 미디어 비평서인 <메신저 죽이기(Killing the messenger: 100 years of media criticism)>에 나오는 ‘죽이기’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강준만 이후 국내에 일인 저널리스트를 자처하는 여러 포퓰리스트가 등장한다. 보수편향 논객으로는 조갑제, 변희재, 손광주를 꼽을 수 있다. 진보편향 논객으로는 진중권, 손석춘, 홍세화가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에서 여러 일인 저널리스트들이 감성 자극적 언어로 선동적이며 선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헌법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이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정치체

제2주제: 우리 사회의 포퓰리즘과 언론

제를 제대로 추구하기 위해 여러 사회 제도를 마련해 왔다. 그 중 하나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다. 헌법 2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3장에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기에, 사회계층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의 정서와 이익을 배려하는 포퓰리즘이 나쁘다고만 치부할



제2주제 발표를 하는 심재철 교수

더 FBI 국장으로 밝혀져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박종철군 사건 보도는 아직까지는 은폐조작의 최종책임자나 고문치사를 밝히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주요 정보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언론은 인과관계를 밝히는 보도에서 환상적 상관관계(illusionary correlation)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상적 상관관계란 전혀 다른 두 사건을 마치 인과관계에 의해 연결됐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방식을 뜻한다. 지상파 TV 시사프로그램이 다우니 병에 걸린 소가 쓰러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마치 광우병에 걸려 쓰러지는 소로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도

보수·진보 편갈라 二分法的 접근 횡행 갈등이슈 핵심파악 해결책 제시해야

수 없다. 다만 진보든 보수든 포퓰리스트들이 미디어를 통해 감성 자극적인 언어로 적과 아군을 가르치는 식의 이분법으로 사회구성원의 이기심을 자극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인내하기 어려운 논리를 전개하며 종종 사회현실을 오도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선거에서 종종 북풍이나 황색바람이 부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언론의 사명은 무엇보다 첫째도 정확, 둘째도 정확, 셋째도 정확한 보도에 있다. 정확한 보도만으로는 객관적인 보도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정확한 보도는 사실보도의 핵심 사항이다. 정확하지 않다면 언론이 추구하는 현실 점검(reality check)이나 주위환경에 대한 감시는 이미 물 건너간 형상이다. 그래서 언론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왜 지금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해야 하는지를 체크 아웃해야 한다.

언론은 돈의 흐름을 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시장 자본주의 체제에선 자본가의 돈이 정치가를 부패시킨다. 정치가는 다시 자본가가 자산과 부를 쉽게 축적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나 법령을 유리하게 고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언론은 자본가 - 정치가 - 사회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돈의 흐름을 제대로 추적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중요한 촉매역할을 한 박종철군 사건 보도가 아직까지 미완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정부의 은폐 조작 과정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베일에 가려진 정보원이 마크 펠

록 방영했다. 다우니 병에 걸려 쓰러지는 소는 광우병에 걸려 쓰러지는 소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광우병 피해에 관한 TV 보도를 하면서 다우니 소에 대한 화면을 삽입하는 것은 시청자에게 의도적으로 환상적인 상관관계의 오류를 범하도록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는 한국의 민주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박종철 사건보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폐에 물이 차 수포가 생기게 마련이라고 한다. 박종철군의 사인을 처음으로 검사한 의사 오연상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자가 경찰의 물고문을 연상하도록 폐에 수포가 생긴 사실을 강조했다고 한다. 즉 경찰의 물고문과 폐 수포와는 상관관계가 없으면서도 마치 환상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듯이 취재기자에게 흘렸다. 물론 언론은 이를 헤드라인으로 뽑아 독자나 시청자에게 물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게 했다. 광우병 보도는 촛불시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박종철군 사인의 하나로 꼽히는 폐 수포에 관한 보도는 경찰의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 폭로로 이어졌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같은 보도방식이었지만 하나는 지탄의 대상이 됐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정의로운 분노를 자극하는 언론의 패거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례 모두가 언론의 환상적인 상관관계의 오류 보도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언론은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사안에 대한 갈등 해결책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주요기능은 주위환

경을 감시하고, 사회 제 세력을 연결하며, 문화의 전승과 오락제공에 있다. 따라서 해결책 제시는 언론의 기능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뉴스가 진실에 가까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갈등이슈에 대한 핵심사항을 드러내 보이면 해결책도 자연스럽게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와 B라는 집단이 오렌지 한 박스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다고 하자. A와 B 그룹은 이 오렌지 한 박스를 양분할 의사가 없으며, 한 개라도 상대방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단지 승자독식을 원하는 상황이다. 반분한다면 양 그룹은 서로 자기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기에 갈등은 다시 재현될 수 있다. 그래서 A와 B그룹이 왜 이 오렌지 박스를 원하는지를 심층취재 해 보았다. A그룹은 오렌지의 내용물이 필요했고, B그룹은 파이를 만들기 위해 오렌지의 껍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갈등해결책은 쉽게 나온다. A그룹은 내용물을 취득하고 B그룹은 껍질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언론사는 진보나 보수나에 상관없이 제한된 취재인력과 데드라인이라는 시간적 압박 속에서 게이트키퍼와 뉴스생산 작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보도한 이슈와 관련된 현실 점검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으며, 돈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사안에 대한 원인 귀인과 해결책 제시에서 환상적 상관관계와 같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렇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며 공중도덕과 사회규범을 침해할 수 있는 언론보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의사표현은 천부의 권리이며,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극장 안에서 사실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불이야” 하고 소리를 칠 자유는 어느 사회에서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스몰라(Smolla, 1993)에 따르면 ▲진실을 무자비하게 무시하며(reckless disregard of the truth) ▲실제적인 악의(actual malice)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진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게 맞다.

특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열린사회를 지향하며 공공이익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미국에선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란 기본권에 의해 보장받는다. 데이빗 할버스탐 기자는 월남전에서 존슨대통령으로부터 베트남의 전략과 용병술을 찬양한다는 이유로 ‘매국노’라고 불렸다. 뉴욕타임스는 미대통령이 요청한 할버스탐 기자의 분국 소환을 정중히 거절했다. 이러한 미국에서도 사회적 약자나 소수세력에 대한 증오적 표현(hate speech)은 언론자유와 관련해 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진실에 대한 무자비한 무시와 명백하고 현존하는 선전 선동의 위험에 대한 거증책임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측에서 제시해야 한다. [www.koreaherald.com]

순수 민간차원 言論개혁 전개할 때

大韓言論 300호 기념 '한국의 포퓰리즘' 대토론회

성병욱 · 전 중앙일보 주필

발제자도 지적했다시피 민주정치에서 민중의 의사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의 등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또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지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인기영합, 대중 선전·선동으로 지탄받을 포퓰리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주장에 따른 재정 지출이 성장 동력을 현저히 잠식하고 후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준인가. 다른 중요 부문 지출에 큰 영향을 줘 부문별 균형을 깨뜨리는가. 그로 인한 혜택이 불필요한 사람에게도 분산되는가 등이 중요 기준이 될 것 같다. 이런 기준에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강행 추진되고 민주당과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고창되고 있는 보편적인 학교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지탄받을만하다. 갑작스런 무상급식 재원 마련 때문에 그 못지 않게 시급한 교사 신·증축 등 다른 부문의 지출이 크게 위축될뿐 더러 자기부담 능력이 넘치는 부유층 자녀들에게까지 방만하게 교육재정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그 비용을 제대로 산정이나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지 의문이다. 대표적 복지 선진국이었던 영국 등이 왜 복지 규모를 축소하는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것 같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마저 친서민정책이니 선택적 복지니 공정사회니 하며 포퓰리즘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 복지는 하방경직성을 지녀 일단 시작되면 물러가거나 줄이기가 극히 어렵다. 복지의 확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역사의 방향이지만 포퓰리즘에 휘둘리면 재앙을 낳는다는 것 또한 역사의 교훈임을 명심해야겠다. [4]

신대근 · 전 대구MBC 사장

#1. 일본 민주당의 간 나오토총리는 지난2003년 그가 대표시절에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번 총선거에서 집권한후 심각한 재정적자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당내 반대파인 오자와와 야당인 자민당으로부터 퇴진압력을 받았다.

#2.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해 노동자들과 고등학생들까지 길거리에 나서는 격렬한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정년을 3년 연장함으로써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개혁안을 관철시켰다.

위에 든 두사례는 In-put(재정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납발하는 공약이, 표를 얻는데는 효과가 있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견어내는다는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름을 알려주는 생생한 사례다.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제도는 아직 서구 각국에 비해서는 초보수준이다. 그동안에도 정권들마다 각종 복지 카드를 들고 나와 표심을 유혹했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선거는 지난해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때였다. 무상급식이라는 달콤한 공약에 유권자들은 표를 몰아 주었고 여당은 일거에 지방권력을 잃고

제1,2주제: 각론 및 종합토론



문명호 사회자

design) 콘퍼런스에 보낸 메시지에서 "의료 보험과 연금제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바람에 공립학교에 대한 교육투자가 열악해 지고 있다. 앞으로 과도한 복지지출을 줄이고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미래에



성병욱 토론자



신대근 토론자



최희조 토론자



최홍재 토론자

무상복지 한번 시행하면 후퇴 어려워 '모든 비용 결국 국민부담' 사실 알려야

말았다. 내년에 실시되는 총선거와 대선에서도 무상복지카드가 이미 가장 큰 선거 이슈로 등장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등록금으로 요약되는 민주당의 선거 공약은 이미 정국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여당은 이 공약의 파괴력에 놀라 이미의 부당성을 반박하기는커녕 은근슬쩍 따라가는 형국이다. 신이난 야당은 무상복지 카드로 선거 정국을 사로 잡겠다는 기세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공약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Out-put(혜택)은 강조하는 반면 이를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부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애써 축소한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의 연간 세금과 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은 20%전후로 아직 서구 각국의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40~45%전후에 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우리 노동자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금 유럽 각국 만큼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세금 부담을 거의 두배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노동자들은 과연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빌 게이츠는 지난3월2일 통비치에서 열린 TED(Technology,entertainment &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지금 복지논쟁에 몰입하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이 새겨 들어야 할 언급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복지지출로 인한 모든 부담은 결국은 자신들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이다. [4]

최희조 · 중부대 초빙교수

오늘날 우리 언론의 역기능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언론은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반식민 반독재와 민주화 산업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언론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각에서 이 정부가 언론탄압 독재정부라고 주장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자유가 무책임하게 남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896년 4월7일 서재필박사가 최초의 순한글 민영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한 이래 우리 언론이 오늘 날처럼 이렇게 망가진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언론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밝혀 주는 파수꾼이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매스 미디어가 진상규명과 정론의 종결자가 되고 있는게 아니라 의혹과 루머를 확대재생산하고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 파괴자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유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게 하려는 속셈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이 신문보다는 영상 음성매체가 더 하고 그보다도 뉴 미디어인 인터넷 매체가 더 심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언론인이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매스컴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론 불신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MBC의 미국 최고기 광우병 관련 PD수첩과 1년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증북 좌파 매체의 보도가 대표적 왜곡 조작 선동 사례입니다. 언론이 객관적 사실조차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무엇보다도 각종 포퓰리즘을 냉철한 머리로 파헤쳐 국민 앞에 그 정체를 낱알이 밝혀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언론이 언론자유와 미명아래 포퓰리즘을 부풀리는 파괴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리라 내다봅니다. 저는 요즘 국내 정치 종교와 함께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직 언론인들의 최대 단체인 대한언론인회를 중심으로 관련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언론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옴부즈 맨 같은 활동이 여러 개혁운동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정적인 오보나 의도적인 왜곡보도에 대해선 미디어 수용자들이 순수 민간 사이트에서 나서서 엄중한 감시 제재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4]

최홍재 · 공정언론 시민연대 정책위원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하나는 심재철교수의 발제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혁명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중영합주의와 연관된 내용이다.

따라서 언론과 포퓰리즘과의 관계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혁명주의와 관련된 언론의 포퓰리즘을 진단해 보자. 포퓰리즘 정치가는 1) 단정적이고 직설적인 언어구사와 미디어 선동정치 2) 지배엘리트에 대한 적개심 3) 인민주권의 회복을 주장한다고 정치학자 서병훈 교수는 말한다. 이런 정치가가 활용하거나 스스로 이런 정치가의 이념을 구현하는 언론을 포퓰리즘 언론이라고 할 때 레닌과 볼셰비키, 그리고 그와 그들의 기관지였던 '이스크라'는 그 전형적인 예라고 서병훈은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한국 언론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언론포퓰리즘이 존재하는가?

5면으로 이어집니다.

종교의 政治개입 ‘常識’ 넘어서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한다고 해서 많은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가 종교에 간섭을 한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많은 논의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 둘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가 하면, 바르고 참된 것을 주장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범을 방자해 정당화되는 것은 바로 그 범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사회는 '종교와 정치'라는 것을 주제로 사뭇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듯 긴장감이 듭니다. 그런데 벌어지고 있는 일에 밀착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서둘기 전에 조금 차분하게 그러한 사태의 구조와 긴 역사적 전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의견을 발언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생각해볼고 싶은 것은 정치도 종교도 삶의 표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주체는 정치에도 종교에도 모두 한꺼번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 둘을 딱 나누어 다른 실재로 전제하면서 너는 정치에 속했고, 나는 종교에 속해있다고 잘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둘이 중첩된 문화 안에서 걸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상 정치, 경제, 과학, 예술, 종교 등을 나누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들이 편의를 위한 서술적 분류개념이지 본질적으로 그것들 하나하나를 단절된 실재로 여기는 존재론적 분류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누어 생각하고 기술해야 할 만큼 그 둘은 서로 다릅니다. 적어도 직접적인 지향이나 기능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내 중첩된 귀속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선한다고 판단되거나 더 중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선택하여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이 드

러난 것이 이룰테면 종교인이나 정치인의 등장입니다. 그러므로 소박하게 말하면 정치나 종교나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서로 다른 삶의 스타일입니다. 정치는 사람들을 잘 살도록 하는 이념을 전제하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힘의 기능을 구사하여 구현해



정진홍
•울산대 석좌 교수
•종교학

보완관계만이 아니라 갈등적인 관계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가 그러하듯 종교도 스스로 자기 자율권을 내장한 조직으로 이 사회에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이들은 우리 삶의 공동체 안에서 '힘의 실체'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동일한, 그리고 개체로서는 불가피하게 중첩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별개로 있어 보완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하지만 자기 생존을 위한 원리에 충실할 경우 필연적으로 갈등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관계를 건전하게 하기 위한 온갖 지혜를 짜내어 마련한 것이 이른바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정교분리'란 정치와 종교가 처음부터 별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절될 수 없는 하나의 두 다른 모습인데 뒤섞여 범해지는 상호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보자는 방법론적인 이상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둘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될 때 그 원칙을 마구 휘두르면서 '감히 종교가 어떻게 그 원칙을 어기면서 정치에 뛰어드나?' 하는 질책을 하는 것도 일종의 자기 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마찬가지로 종교가 '감히 그러한 세속적인 준거로 종교의 진리 주장을 막으려하다니!' 하는 질책을 하는 것도 일종의 절대주의적인 비현실적 태도입니다. 둘 다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구호를 외치듯 휘두르기 보다는 현실에 대한 침착한 성찰을 심화하면서 그것이 상식적으로 자리를 잡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정교분리 원칙의 실현입니다. 구호는 아무 것도 담지 못합니다.

한가한 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태들을 짚어가면서 옳고 그름을 명쾌하게 단언해야 속이 시원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갈등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책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일수록 우리는 좀더 차분하게 상식적이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예상치 못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거의 모두 생각을 되생각하지 않는에서 말미암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4]

政教 분리는 상호갈등 억제 장치 나서기전에 좀 더 긴 생각할 필요

야 하는지 하는 것을 자기 일로 여기는 것이고, 종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고한 목표로 삼아 이를 이룩하기 위해 초월이나 신성(神聖)이나 터득 등의 비일상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일상 안에서 이를 이루려는 것을 자기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단절될 수 없습니다. 둘 모두 이른바 인간의 복지를 위한 동일한 목표를 지니고 있는 다만 두 다른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그 둘이 온전하게 다른 실재로 나뉜 채 공존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는 종교의 이른바 위광(威光)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의 힘을 정당화했고, 종교는 정치의 현실적 힘을 통해 자기 확장이나 자기 강화의 계기를 부지런히 확보해온 했습니다. 그 둘은 서로 상대방을 간과할 수 없는 지극히 유기적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있고, 그렇기를 서로 늘 희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구조적으로 단절될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고 힘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기 확장과 자기강화의 속성을 지닙니다. 힘의 본연적인 존재원리가 그러합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나 힘의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면 살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존을 위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어떤 힘의 실체도 결국 그것은 속성상 이익집단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종교도 정치도 어떤 계기에서는 이러한 한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서로 겨루고 다투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뜻밖에도 둘 사이의 이러한 공음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문화 안에서는 이 일이 몹시 복잡하게 펼쳐지곤 했습니다. 정치에 의해 종교라는 삶의 모습이 일그러지기도 했고, 종교 때문에 정치라는 다스림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때문에 종교 간의 알력이 고조되기도 했고, 종교 때문에 정치가 제 기능을 훼손당하는 경우도 야기 되었습니다.

사이 일부 일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보도 태도라 판단된다. 사실 자체를 왜곡시켜서 특정 정치세력이나 사회단위를 공격하는 것을 두고 일반적인 저널리즘이라 할 수 없다. 서병훈이 말하고 있는 혁명주의적 포퓰리즘의 잔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대중영합주의로서의 포퓰리즘과 언론과의 연관성은 어떠한가? 언론의 사명 중 권력에 대한 감시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다. 독재나 권위주의 시대에 언론은 몇몇의 정보독점과 사실 왜곡을 피해쳐 국민에게 '사실' 그 자체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면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안착되고 정보가 홍수를 이루면 이제 언론의 기능은 대중영합주의를 진단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정치인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표가 필요하다. 특정 정치인과 정당이 표를 획득하기 위해 실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약속을 대중들에게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경쟁 정당에게 그보다 더 많은 약속을 촉발시킨다.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경제주체들은 힘써 일하는 대신 포로 정당에 압박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고 사회는 노동의 문화 대신 큰 목소리가 횡행한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는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러야 종료된다. 그것은 거대한 고통과 혼란과 소요를 동반한다. 언론은 이와 같은 포퓰리즘의 비극을 직시하고 정당과 정치인에게 현실가능한 정책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검증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와 언론지형은 시대착오적인 혁명주의적 포퓰리즘의 잔영하에 놓여 있었는데 최근 대중영합적 포퓰리즘도 발호하기 시작했다. 언론의 사명은 "첫째도 정확, 둘째도 정확, 셋째도 정확"이라는 심재철교수의 지적대로 본연의 임무에 굳건하게 서서 첫 번째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두 번째 포퓰리즘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4]

4면에서 이어집니다.

사례 1)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비민주적 법·사회제도의 개혁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자유·평등 실현의 한길에 힘차게 나선다.(언론노조 강령 4조)

사례 2) 우리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 독점재벌의 민중수탈, 군사독재로 얼룩져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중략---) 민중의 해방과 민족의 통일,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봉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 (민노당 정강 정책 전문)

〈사례 1〉은 언론사 노조가 연합해 있는 언론노조 강령 4조이다. 그들의 목적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이다. 언론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으며 이 민주노총은 민노당에 최고 지분의 당연직 대의원을 가지고 있다. 〈사례 2〉는 이 민노당 강령 전문 도입부로 한국을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식민지로 인식하고 있다. 80년대 주사파의 '혁명적' 인식이다. 언

론노조는 이와 같은 민노당에 민주노총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실제 그들은 민노당 후보에 선거자금을 지원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즉 언론노조와 민노당은 조직적, 이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언론사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례 3) 6월 혁명은 미완의 혁명이었기에 상식과 이성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 않았고, 혁명의 향기대신 부패와 타락과 야만의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방송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현직 방송사 모 PD / 2007년 6월)

위 글은 6월 민주화운동 20주년을 기념하여 쓴 현직 방송사 한 PD의 글이다. 이 방송사의 노조 조직률은 거의 90%에 이르고 이 방송사 노조는 현재 언론노조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의 문제의식이 보도로 표출된 것이 2002년과 2007년 대선 당시 야당후보에 대한 흑색테러방송이었으며, 2008년 광우병 보도였고, 요

日 지진 ‘시민 의식에 세계가 감동’

성난 검은 해일이 아름다운 숲의 도시 센다이와 일본의 동북부 해안 일대를 한 순간에 삼켜버린 광경을 지켜본 전 세계는 상상을 초월한 끔찍한 참화에 큰 충격에 휩싸였다. 초대형 지진으로 땅이 꺼지고, 집과 건물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불기둥이 치솟았다. 곧 바로 10미터가 넘는 검은 쓰나미(津波)가 맹수처럼 달려와, 숲으로 아름다운 센다이(仙臺)시와 미야기(宮城)현 등의 해안가 도시와 마을을 덮쳐 쓸대밭을 만들었다. 집채만 한 배를 산에다 처박고 뒤엎긴 자동차를 배처럼 이리저리 띄우다가 논밭에 팽개쳤다.

쓰나미의 위력은 가마이시(釜石)시가 31년동안 공사해서 2009년에 완공한 세계제일의 심해방파제를 훌쩍 뛰어넘어 한꺼번에 마을을 삼켜버린 것만 봐도 짐작이 간다. 특히 동북부 해안에 위치한 후쿠시마(福島)의 원자력 발전소가 해일에 의한 냉각장치의 고장으로 1,2,3,4호기가 폭발하거나 화재를 일으켜 원자로의 노심일부가 손상될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다. 원자로 폭발에 따른 방사능 누출이 걱정된다.

지금 일본열도는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사고라는 고난의 3각과도에 휩싸여 신음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네 번째의 초 대형지진으로 인명 피해만도 수만 명의 사상자와 10만 명에 이르는 행방불명자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대자연의 위력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인간의 무기력’과 물질문명의 철저한 파괴를 목격했다.

그러나 쓰나미가 할퀴고 간 죽음의 공포속에서 일본사람이 보여준 ‘양보의 미덕’과 ‘질서의식’은 한 단계 높은 시민의식에 온 세계가 감동했다. 이는 문명사적 전지에서 보면, 거대한 자연재해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으로 기록



송호빈

· 본회 감사
· 전 한국일보 일본 특파원

을 발견하기 어렵다. 길게 늘어선 슈퍼마켓이나 주유소에서 끼어들기나 새치기 등 불쌍사나운 모습도 없었다. 강도나 약탈과 같은 무법천지의 사태는 더더군다나 없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일본의 시민의식이 인류의

나는 반복된 교육과 훈련에 의해 생성된 제2의 천성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유아교육의 제1조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메이와쿠’(迷惑)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친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여긴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선 자기감정을 억제하고 남을 먼저 배려해야 가능하다. 이런 교육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천성이 됐다. 이런 교육과 함께 지진방제 교육을 항상 실행하기 때문에, 지진의 공포에서도 침착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인의 최고의 미덕은 집단우선을 내세운 ‘조화’의 정신에 있다. 일본은 아마토(和)민족이라고 한다. 아마토 정신은 일본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됐다. 일본이 집단의 힘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마토 정신에 있다. 일본사람은 아마토다마시(大和魂)를 좋아한다. 和로써 단결하여 불퇴전의 돌격정신과 집단행동을 가리키는 대명사다. 일본이 패전의 잿더미에서 1960년대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집단우선의 단결력에 있다. 이런 일본은 참혹한 3.11 대지진의 고난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어쨌든 가깝고도 가까워야 할 한일 양국은 21세기 태평양시대를 열어가야 할 동반자다. 이웃 일본의 세계적인 재난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열성과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자. ☞

반복교육 - 훈련이 민족성으로 굳어 대재앙 딛고 다시 일어설 저력 보여

될 것이며, 중국에는 ‘인간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나라에서 보면 대규모의 자연재해 뒤에는 반드시 폭력과 약탈과 무질서로 시달렸다. 오죽하면 지진보다 약탈이 더 무섭다고 했겠는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도 일어났고 지난해 아이티 지진 때도 어김없이 약탈행위가 벌어졌다. 그러나 일본은 달랐다. 생사를 가름 하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방재 센터의 대피방송에 따라 차례대로 침착하게 안전지대로 빠져 나오는 일본인의 질서의식과 집단의식에 세계는 경탄했다. 여기에는 슬픔에 복받쳐 울부짖는 모습

정신 진화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NYT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일본인의 질서의식과 집단의식에 깊은 경탄을 보낸다”고 말했다. 중국의 신화사 통신역시 일본인의 침착성과 질서의식에 감탄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인은 무엇이길래 생사의 기로에선 대지진의 공포에서 극도의 자제력과 인내력으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런 응집력과 단결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해답은 여기에 있다. 일본 사람의 특징은 친절과 정직이다. 위기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

다나카 아키라(田中 明)씨가 작년 12월 8일 향년 84세로 타계 했다는 엽서 한 장이 돌연 일본에서 날아 왔다. 슬픔과 함께 가슴이 철렁 했다. 한참동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는 자신을 발견 했다. 사사모리 행정서사 사무소에서 보낸 엽서에는 고인의 사후 사무 수입자가 바로 행정서사 자신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하나뿐인 딸이 2년전 병사하여 슬퍼하던 그는 치매증세가 있는 부인을 돌봐야 하는 형편, 노경의 그의 처지가 안쓰러웠다. 그의 임종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 행정서사에게 물어야 할 것만 같은 허허로운 마음.

거의 반세기 가까운 시간 속에 있었던 그와의 인연을 떠 올리게 된다. 60년대 후반 나의 언론사 특파원시절 그는 아사히신문 기자로 필명이 알려져 있었지만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직후 양국간의 현안에 대해 한국통 일본기자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것은 일제 식민지시절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 와 11년간 서울 후임동에 거주 하면서 용산중학을 다닌 배경도 있지만, 그는 신문사 재직중 돌연 휴직계를 내고 고려대 대학원 국문학과에 입학해 한국 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이력이 그가 한국을 잘 알고 있다는 설명이 될 것 같다. 도쿄대 문학을 졸업한 그가 그렇게 한국 문학을 공부 하려고 한 깊은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그는 나에게 보낸 편지의 대부분을 일본어 보다는 한글로 적어 보냈다. 문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아주 어렵고 아름다운 우리말 형

용사를 참으로 잘 구사했다. 2001년 11월 초 도쿄 긴자 일식집에서 만난 그는 자기는 이제 건강상 이유로 술을 한 방울도 마실 수 없게 되었다며 나에게만 계속 낮술을 권했다. 옛날 긴자 뒷골목에서 함께 꽤나 마시고 다녔던 일들이 낡은 흑백 영화 필름처럼 순간적으로 지나갔다. 90년대 초 그는 오키다 호텔 아래 골목길에 있던 슈게 츠엔(秀月園)이라는 한식집에서 몇 년간 매월 한번은 나와 만나 그 집 명불인 곱탕과 깍두기를 즐기며 세상이 변해가는 얘기를 했다. S그룹의 창업자인 L회장도 도쿄에 체류중일 때는 이 식당의 음식을 자주 호텔로 배달시켜 들었다는 일화도 있다. 그 한식집의 여주인 할머니는 북경 여의전을 나온 인텔리였다. 밖에는 때 아닌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부근의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사 주었다. 러시아의 저명 국제 정치학자 A.V. 도르그노프가 쓴 〈한국전쟁의 수수께끼(謎)와 진실〉이었다. 이 책은 소련의 극비문서를 통해 6·25 한국전쟁이 북한

‘冬扇房 居士’ 멀리 떠나다

— 日本人 친구의 명복을 빌며



박용근

· 본회 회우
· 전 KBS 정경부장
· 전 동화통신 주일 특파원

김일성에 의해 어떻게 획책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의 일본어 초판이 발간된 것은 2001년 11월 8일 이었다. 그 후에도 그는 자신의 저서를 포함해 10여권의 서적을 우송해 왔다. 2010년 초 〈멀어지는 한국〉, 부제로 〈동산방독어(冬扇房獨語)〉라는 최근 저서를 보내왔다. 책 표지에 쓴 동산방이라는

한자로 된 휘호는 원로 언론인 천관우씨가 저자를 위해 특별히 써 보낸 것으로 그 경위를 책 말미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동산방은 하로동선(夏爐冬扇) 즉 여름 화로와 겨울 부채로 계절이 지나 소용이 없는 물건이라는 사자성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신을 거기에 비유해 하숙방에 걸렸다고 술자리에서 부탁하고 있고 있었는데 2년여가 지난 후 어느 날 한지에 곱게 쓴 휘호가 도착했다. 천관우씨는 역사가, 언론인으로서도 유명했지만 서예가로서도 조예가 깊었으며 지사와 대인품모를 겸비했던 분으로 자기와는 한 살 차이였으나 그런 것

들을 조금도 내 비치지 않는 소탈하고 겸허한 태도로 대해 주었다. 호주가인 선생은 술을 권하는 방법도 훌륭해서 잔을 사이에 두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래서 자신의 몸가짐에 어울리지 않는 짓인 휘호를 부탁하게 된 것 같다. 선생은 나의 부탁을 듣고 파인대소 하며 “허허 동산방(冬扇房)이라고요? 좋습니다”라고 흔쾌하게 응낙해 주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나 자신도 그 사실을 잊고 있었으며 술자리에서의 일이라 천선생도 지나가는 말로 흘려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선생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당시 반정부 인사로 지목돼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온 ‘冬扇房’이라는 세지의 한문 붓글씨에 나는 크게 감동했다 —

또 다른 한토막 흘러간 이야기. 소설가이며 KBS사장을 역임한 서기원씨가 타계한 사실을 한국의 신문들 통해 뒤늦게 알게 된 다나카씨는 정중한 서신과 함께 미화로 바꾼 부의금을 유족에게 전달해 줄 것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와 나에게 부탁 했었다. 그 얼마 후 그가 살고 있는 후지시와(藤澤)에서 재회했을 때 서기원씨 유족으로부터 답례의 서한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내심 안심했던 기억이 새롭다. 사람은 가고 그가 보낸 책 〈한국의 민족의식과 전통〉 〈한국인 이야기〉 〈서울 실감록〉 〈한국단상〉 등을 다시 펴보며, 冬扇房居士가 남 북관계 그리고 한국을 몹시 걱정하던 모습에 고개 숙여 명복을 빈다. ☞

‘1등 국민 5등 정치’ 드러낸 日本

일본 동북, 관동지역의 대 지진과 해일, 그리고 동시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대 붕괴로 인한 심각한 방사선의 오염을 지켜보는 우리들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온 재앙 중에서도 이번과 같은 지진, 쓰나미, 원전붕괴로 인한 방사선의 오염이란 3가지가 동시에 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이 엄청난 재앙은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피해규모를 집계할 수는 없었으나 재앙이 발생한지 2주가 되는 시점에서 중간 집계된 피해만도 사망 실종 2만 7천여명, 피해액 25조엔(약 35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방사선에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 농산물등의 반출이 금지되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200Km나 떨어진 도쿄의 수도물에서 방사선 오염물질이 발견되는등 일본열도는 한마디로 패닉상태다. 이 엄청난 재앙을 강 건너 불처럼 지켜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갖고있던 대일관을 여러면에서 조정하게 되었다. 1등국민의 의연한 모습, 2등언론의 차분한 보도, 3등기업의 집요한 상흔, 4등내각의 아마추어리즘, 5등정치의 무분별한 집권욕을 볼수 있었다.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46분 10m가 넘는 쓰나미가 미야기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후쿠시마현 해안일대를 엄습했을 때 좁자에 가족과 집을 잃은 주민들은 누구의 도움이나 안내도 없이 재난에 대비해 지정된 학교나 공회당 등에 집합하여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각자가 가져온 식수, 식료품등을 한데 모아 집단 취사준비를 하고 곧이어 고령자들에 대한 간호를 분담해서 맡고 아녀자들을 한데모아 영하로 떨어지는 밤에 대비해 옷을 끼여 입한다. 전기와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촛불을 구해 겨우 불을 밝힌 그들은 주먹밥 한개를 두사람씩 나누어먹게 하고 난방을 위해 불을 지핀다. 이미 외부와 두절된 고립된 상황에서 그들은 마치 평상시 연

습을 하듯 메뉴얼에 따라 하나하나 대책을 진행시킨다. 거기에는 공무원도 경찰도 소방대원도 없다. 오직 방글전 쓰나미에 집과 가족을 떠나버리고 홀몸이 되었거나 한두 가족을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온 사람들 뿐이다. 분통을 터뜨리는



조창화

- 본회 명예회장
- 전 KBS 일본 특파원

러진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다. 역경속에서도 의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해 내려는 노력과 훈련을 꾸준히 쌓아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대 재앙속에

달아오르는 원자로를 식히기위해 호스로 물을 쏟아 붓다가 방사선에 피폭되는 상황이 속출해도 도쿄전력은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와같은 도쿄전력의 장사숙조사와 발표를 일본 내각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사선유출이 확인된 다음날 원전부근의 주민들을 대피시키면서 반경 5km 밖으로 했다가 다음날 10km로, 곧이어 20km로, 다시 30km로 확대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무성 대변인이 미국은 독자적 조사를 토대로 반경 80Km 밖으로 미국시민의 퇴거를 권고했다고 했겠는가. 목전의 이익만을 탐한 기업의 상흔에 내각의 아마추어리즘이 높아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뿐인가. 재해지역을 돕겠다는 불투명자들이 일본열도에 넘치고 구호물자가 산처럼 쌓여있는데 휘발유가 없어 자동차가 갈수 없다는 이유로 고립된 이재민들을 며칠씩 추위에 떨게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리더십 부재의 한 단면이 아니겠는가. 불투명어 100명이 20Kg의 등짐을 지고간다해도 2000Kg의 구호물자를 보낼수 있지 않았을까. 3월24일 여당인 민주당의 오키다 간사장등이 피난범위를 30km로 한정할것이 아니라 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면 어떨라는 혼수를 하는것을 보면 정부·여당내에서도 불만은 꽤 있는것 같다. 그러나 더없이 실망스러운 것은 정치의 작태다. 나는 일본의 정치는 우리보다 몇수위의 성숙성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특히 반세기 이상을 집권하다 야당이된 자민당은 대재앙을 맞아 팔뚝을 걷어 붙이고 구원과 복구에 앞장 설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자민당에게는 이 재앙이 재집권의 기회일뿐 여당을 매도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상은 아닌 듯하다. 일본의 정치가 겨우 이 정도일까하는 실망을 감출수 없다. [4]

대재앙속 성숙한 언론보도 돋보여 재집권 찬스 노리는 야당태도 실망

사람도 없고 정부는 뭘하느냐고 섣대질하는 사람도 없다. 그저 조용조용 바쁘게 움직일 뿐이다. 이것은 인구 2만4천명중 1만2천명이 행방불명이된 리쿠젠 다카다라는 한어항 피난소의 모습이다. 다음날 아침 중학생 2, 3명이 종이에 무인가를 열심히 써서 벽에 붙인다.

“힘내라 다카다. 목숨 건진것을 기뻐하자!” 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른들의 눈엔 하염없는 눈물이 주룩룩 흐르고 있다. 이 무서운 침착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나는 75년서부터 5년간 일본에서 KBS특파원을 하면서 애들을 일본유치원과 소학교에 보냈다. 그때 수많은 일본 부모들이 어린 자식들에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하는 두마디의 잔소리를 기억한다. 하나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이고 또 하나는 ‘정리정돈’이다. 일본의 센토(공중목욕탕)에 가면 목욕하는 사람들이 모두 죄지은 사람처럼 보인다. 남에게 물이 한방울이라도 될까 조심하는 모습은 꼭 죄지은 사람들이 굶살대는 모습을 연상케한다. 일본인들이 죽기보다 싫어 하는것은 흐트

서 국민다음으로 돋보이는 것은 성숙한 일본의 언론이다. 특히 쓰나미가 덮친 순간부터 일주일간 하루도 쉬지않고 24시간 날밤을 새우면서 재난방송을 해내는 NHK의 저력과 차분함은 일본의 종말이라도 온 양 흥분하는 우리의 방송과 너무 대조적이었다. 시종일관 차분한 어조로 재해를 전하는 앵커들이나 출연한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국민들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신들의 모습을 일체 안보여주고 국민들의 과잉 반응을 억제하는 것 등은 우리 언론의 미숙을 새삼 짚어보게 한다.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죽은 사람을 볼 수 없고 어쩌다 구조된 산 사람만 부각하는 언론 재난을 처리하는 성숙된 모습이다.

후쿠시마원전의 관리운영은 도쿄전력이 맡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앙의 발생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쿄전력이 취해온 애매한 태도는 방사선의 유출 상황을 축소발표하고 있다는 인상을 더욱 짙게하고 있다. 목숨을 건 결사대들이

본회 장무원 회우(전 KBS 보도본부 주간·현 종합 일간신문 아시아투데이 부회장)가 1980년 5월 21일 저녁 7시 KBSTV 뉴스에서 광주에서의 민주화 의거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살상현황을 국내인론으로서 최초로 보도함으로써 광주소식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한 사실이 30년이 지난 뒤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정을 받았다.

당시 KBS 보도국 편집부 차장이던 장회우는 비상계엄아래 보도통제로 국내언론들이 광주의 실상을 한줄도 내보내지 못하던 상황에서 틈틈이 광주에서 기자들이 전해오는 소식과 외신 보도, 현지인 증언등을 종합해서 기사로 정리해 놓았다가 이를 보도했다. 당시 기사 내용은 학생과 시민군이 송정리, 여수, 보성, 순천, 벌교, 화순, 담양의 예비군 무기고를 접수해 장총 1천정과 실탄 5만발을 탈취해 광주로 집결해서 광주형무소 부근에서 계엄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

光州민주화 의거 KBS 첫방송 본회 장무원회우 공로 공식 인정

되었다.

텔레비전 7시 뉴스 편집 책임자였던 장무원 차장은 당시 계엄사의 KBS 담당자 김태진에게 언제 보도할 수 있느냐고 묻고는 “죽을테면 당신 마음대로 해”라는 답변을 듣자 뒷부분 “당신 마음대로 해”라는 구절만을 갖고 당시 김도진 보도국장에게 계엄사 허가가 떨어졌다면 보도를 맡아 붙였으며, 계엄사 측에서 거센 항의가 들어왔지만 중간에 뉴스를 멈출 수 없다면 결국 20분 동안 관련 소식을 모두 내보냈다.



장무원 회우

KBS가 계엄사의 보도통제를 깨고 보도를 하자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관련보도를 하기 시작해 신문의 경우 뉴스가 진행되는 도중 긴급호외를 발행해 뿌리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광주에서의 민주화 의거가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당초 사태 정리 후 발표를 하려던 계엄사는 다음 날부터 시민대표와 협상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장무원 회우는 1차 해직자 명단에 들어 KBS에서 쫓겨나 8년

동안 갖은 고초를 겪다가 복직해 보도국 문화부장, 보도국 주간, 전주 방송총국장 등을 역임했다.

장무원 회우는 국무총리 직속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회위원회’에 여러 차례 진정서를 넣어 이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뉴스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당시 KBS식구들이 기억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번번이 기각됐다. 이렇다가 민주화 심의위원회 이인숙 전문위원이 1년여 동안의 조사 끝에 당시 신군부가 행한 언론탄압에 대한 보고서에서 보안사령부의 대외비 문서를 찾아내어 장무원 회우의 해직사유를 증명하는 문서, KBS가 광주의거를 맨 먼저 보도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2010년 12월 13일 이를 인정했다. 정부가 목숨을 걸고 광주 민주화 의거를 먼저 알린 KBS뉴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4]

‘原電 안전’ 초미의 관심사 부각

산리쿠(三陸)연안을 삼킨 일본 최악의 대지진과 해일 참사 이후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들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투는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사망·실종자가 1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비극의 진앙은 1896년 메이지 시대에도 2만 2,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곳이다. 일본의 총발전 용량은 1.2억 Kw, 원전은 약 5,000만 Kw다. 일본 원전의 재앙은 21기의 원전을 운용 중이고 7기를 건설 중인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독일은 일본 원전 폭발 이후 1980년 이전에 건설된 원전 7기의 잠정 운전을 중단할 결정했으며 중국도 원전 신규건설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일본의 원전은 규모 7.5~8.0의 지진에 대비하여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들은 규모 6 정도에서 피해를 받았다. 설계기준을 밑도는 지진 공격에 전기가 끊기고 예상치 못한 해

일에 비상발전기마저 작동이 안 돼 원전 최대의 적인 단전이 지속되면서 원자로 냉각 기능을 잃고 방사능을 분출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원전은 원자로 내부에서 증기를 만들지 말자는 정책에 따라 일본의 비등형 경수로(Boiling Water Reactor)와는 다른 가압형 경수로(Pressurized Water Reactor)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한다. 그러나 내진 설계기준은 일본보다 훨씬 낮은 6.5다. 때문에 만약 한반도 지각 변동으로 기준을 초월하는 대형 지진이 발생할 때 피해는 예상하기 어렵다. 또 고리1호 원전은 30년의 수명을 마치고 보수를 한 후 2008년부터 10년 연장 운전에 들어가는 등 원전의 노후화도 걱정거리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전기 생산의 3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원자력발전은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에너지보다 생산단가가 저렴하고 탄산가스를 덜 발생시킨다. 만약 석유자

원이 전무한 우리에게 원전이 없다면 지금의 고유가 시대에 제한송전 말고는 별 대안이 없을 것이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겠지만 일부 좌경 인사들처럼 원전을 좌악시하고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나라 신문들은 일본 원전 폭발 이후 시설로

신문시평



김영환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난에도 견뎌낼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는 가혹하다는 생각들이 만큼 엄격한 안전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설에서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부서가 원전 감시·규제까지 맡으면 감시와 규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원자력

열을 가릴 수는 없다”면서 전기 생산자나 공급자, 지위대, 경찰의 사명감과 능력을 믿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썼다. 이 신문은 “앞으로도 고뇌의 선택이 요구되는 장면이 몇 번이나 있을 것이다”라고도 지적했다. 대재앙 앞에서 일본국민이 돌보이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방사선 피폭을 무릅쓰는 불면불휴(不眠不休)의 원전 결사대에 수백 명이 원전을 지키려고 몰려들기 때문이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정신, 일본인의 집단주의의 장점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나라에 일본 원전사고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국가기능이 흔들리는 미증유의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계획정전을 어떻게 실시하고 사태를 수습할 사지(死地)에는 누가 남을 것인가? 우리 매스컴은 그런 근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일본 원전 폭발이 대안의 화제만은 아닌 것이다.

일본지진으로 가려진 에너지 뉴스가 있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우리나라가 15억 7,000만 배럴의 원유 개발권을 획득하게 된다는 소식이었다. 가격으로 130조원이 넘고 우리나라가 1년을 훨씬 더 쓸 물당이다. 몇 신문이 사실로 의미를 주었다. 서울신문은 3월15일자 사설에서 “현재 10.8%인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15%까지 치솟게 된다고 한다. 20%만 넘기면 웬만한 오일쇼크에도 거뜰히 견딜 수 있다는 게 정설”이라면서 자원 외교성공을 크게 찬양했다. 문화일보도 3월14일 사설로 “UAE 유전은 입지, 품질, 비용 등 채굴 여건이 탁월해 석유개발 분야의 ‘프리미어 리그’로 불린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석유 메이저 국가들이 조광권을 선점한 1970년대 이후 문이 닫혀 있었다. 한국이 38년 만에 유일하게 진입한 것은 주력 산유국으로의 격상을 의미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4]

미증유재난 전딜수 있는 대책 촉구 일부선 反核 센세이션 부추기기도

우리나라 원전 안전문제를 짚었지만 대체로 안전대책을 강화하지는 원론 수준의 요지였다. 비판이 너무 성급하여 ‘제2의 체르노빌’을 들먹이며 반핵(反核) 센세이션을 부추킨 좌파 매체도 있었다. 일본 원전 사고는 지진으로 가동이 자동 정지되었다. 체르노빌에서는 정기적인 보수를 앞두고 작동시험 중이었던 원자로가 폭발하여 히로시마 원폭 400배라는 약 10톤의 방사능 물질이 확산된 양상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동아일보는 3월17일 사설에서 “정부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은 ‘도쿄전력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원전 운영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원자력 발전 비율을 2010년 31.1%에서 2024년까지 48.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원전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미증유의 재

난을 감시하고 책임질 기구를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회 산하로 따로 떼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한 차원 높은 안전기준에 도달한다는 각오로 모든 가능성을 반영한 재난 시나리오를 세우자”고 썼다.

원자력을 비롯한 현대사회의 인프라는 상호 연관되는 복잡한 시스템 속에 놓여 있다. 운영은 기업이 하지만 한번 사고가 터지면 국가가 수습해야하는 대형사고가 되기 쉽다. 재난은 자연이 주지만 수습은 인간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아사히신문의 3월18일 사설은 원전 재난 수습문제의 정곡을 찔렀다. “중대한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에 임할 것인가? 지금까지 몰입된 논의를 피해 온 우리 사회는 지금 이 무거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군국주의시대의 일본이나 독재국가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 거기에 순위나 우

연예산업 구조개선 시급



김화

· 본보 전문위원
·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 현 데일리리뷰 논설실장

휴면 중이던 장자연 자살사건이 되살아났다. 재 폭발한 장자연의 성상납 리스트가 작힌 편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가짜로 밝혀졌지만 세상을 다시 한 번 흔들었다. 의혹사건의 미해결이 얼마나 무서운 시한폭탄인가를 증명해준 사건이다. 장자연의 성상납 리스트 의혹은 시원하게 밝혀져야 하겠지만 우리 사회는 이번 기회에 성상납 리스트의 폐락적이고 관능적인 관심 보다는 연예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장자연 사건을 막을 수 있다. 2년 전 장자연 자살 사건이 터졌을 때, 요란하게 연예산업 구조 개혁에 대해 왈가왈부 했지만 옹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이번에는 미루지 말고 연예산업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야만 한다.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면 확인전대 제2의 장자연 사건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진상을 밝히지 않고 일시 밀봉했던 배우 장자연 자살사건(연예계 성상납 파문)이 2년 만에 재 폭발 도마 위에 올랐

다. 2009년 3월 7일 일어난 배우 장자연의 자살사건은 부실한 연예기획사의 여자 연예인을 내세운 단순한 술대접과 성상납 사건이 아니라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의 취약성을 여과없이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란 점에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으나 성상납 리스트의 실체 등 진상을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과 고비용 제작, 낮은 수익의 영업구조를 하나도 시정하거나 개선하지 못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다. 이처럼 잠재적 불씨를

안고 있었던 장자연 사건은 장자연이 숨지기 전 자신이 성상납 과정에서 당한 인간 이하의 학대와 수치를 복수해 달라며 지인에게 손수 써서 보냈다는 편지 50통 235쪽의 일부 내용이 SBS 방송에 공개되면서 2년 만에 부활했다. 장자연은 방송사가 공개한 편지에서 “연예계와 대기업, 금융기관,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번 넘게 성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상납 리스트에 국내 유력 일간지 사장 이름도 있어 세인의 관심과 흥미를 끌었다.

2년 전 장자연이 자살했을 때 진상을 밝히고 성상납 리스트에 오른 인사를 사실 여부를 가려 사법처리 했으면 다시 사회적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을 텐데, 그 때 검찰은 수사 능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을 받았는지 진상을 명쾌히 밝히지 못하고 유야무야 하는 바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장자연 사건은 선망의 대상인 연예인에 환멸을 느꼈다거나, 연예계를 정화해야 한다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예계의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이 파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연예기획사들은 소속 연예인들의 광고 수입을 올리고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 금융기관 등 투자자, 배경을 등에 지기 위해 정치인, 그리고 홍보를 위해 언론인 등에 줄을 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연예기획사들의 운영 방식은 대형기획사나 소형기획사를 불문

9면으로 이어집니다.

日 지진 보도 현장감 뛰어났다

원전재앙 예상 지나쳐 공포감만 조성, 일본국민 마음 헤아리는 배려 부족-

3월11일 대지진으로 비롯된 일본의 참사는 지진이 무섭지만 지진보다는 쓰나미가 더 무섭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잘못이 만들어 내는 원자력 발전의 재앙이 더 엄청날 수 있다는 실재를 보여준 사태였다. 3월11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의 TV뉴스를 지켜봤다. 일본인들은 전쟁보다 더한 참화였다고 하면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고 방송들은 보도했다. 일본에 강진과 쓰나미의 대 참사가 시작되자 우리방송들은 속보와 특보를 잇달아 방영하고 특파원을 파견하는 등 진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KBS는 지진 발생 1시간이 채 안된 15시 40분에 KBS 뉴스 속보로 지진과 해일 소식을 방영한데 이어 17시10분, 18시, 19시의 뉴스 특보 그리고 21시에는 '특집 KBS news 9'로 특집 뉴스를 내보냈고 새벽 1시에도 'KBS news' 특보를 내보냈다. 다른 방송들도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일본의 대 참사를 전하는 TV뉴스는 더 이상일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대하는 시청자들은 충격에서 헤어나기가 힘들었다. 방파제를 넘은 쓰나미가 마을을 휩쓸었다. 집들이 팽개쳐지며 부서지고 길이고 철로고 가릴 것 없이 무너졌다. 기차도 사라지고 수많은 배들이 물길에 떠밀리다가 깨어지고 뒤집혔다. 쓰나미를 피해 도망치던 자동차가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하면 바다에 떠있던 배는 길가에 올라타고 앉아 피그스런 모습이었다. 사망에서 불길치 치솟고 통째로 파괴된 마을은 흔적만 남았을 뿐이다. 참상을 보여주는 TV 화면들은 TV뉴스의 특성인 현장감과 동시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대로 보여주는 화면이었다.

KBS가 속보 첫날에 보여준 쓰나미가 방파제를 덮치는 화면은 CCTV가 촬영한 것이었으며 극적이고 리얼한 화면의 상당수는 주민이나 관광객이 스마트 폰 등

으로 촬영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 지고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지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장면들이기도 했다.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한 순간에 집과 그리고 많은 이들은 가족까지 잃고 대피소에 몰려 있다. 길은 끊기고 전화는 불통이고 전기도

방 송 시 평



호 천 응

• 본보 편집위원 • 수필가
• 전KBSLA지국장

기자들의 위험 무릅쓴 取材 돈보여 뉴스 진행자 격앙된 모습 고쳐져야

안 들어와 암흑과 추위를 견디기 힘든데 여진은 계속됐고 쓰나미가 또 올 것이라는 경보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돕는 손길을 내밀었고 우리의 119 구조대가 재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쳤다는 보도는 반갑고 좋은 뉴스였다. 재난 구호는 물리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가짐이 소중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들의 보도 문장 하나, 멘트 한마디도 골라 써야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감정에 격앙되기 보다는 차분하고 냉정한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현장 취재기자나 뉴스 진행자들이 격앙된 모습을 보여 안타까웠다. 때로는 왜 저리 흥분하나? 너무 설치는 것 아닌가? 하는 민망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말투는 삼가야 하며 속대발이라거나 아비규환, 이수라장 같은 자극적

이거나 과장된 표현의 어휘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사 첫날 밤 한 방송사가 특집 뉴스에서 "지진 때문에 한류스타들의 일본공연과 출연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 신 한류열풍이 위축될 것"이라고 하는 어이없는 보도를 내보냈다. 그 기자는 재앙의 정도를 제대로 모르고 보도했겠지만 데스크 기능의 부재를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까 싶다.

또 다른 방송사가 지진 다음날 일본 대지진에 대한 긴급진단에 바로 앞서 '한-UAE 유전계약성사'를 뉴스특보로 편성 방영한 것도 불난 집 앞에서 제 자랑하는 형국으로 보여 민망함이 느껴졌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뛰어들어 기자들의 취재 열기에는 머리가 숙여졌다. 교통편이 막혔는데도 현장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안쓰럽게 전해 지기도 했고 현장에 접근한 기자들은 여진의 공포를 극복하면서 보다 깊은 내용, 리얼한 장면을 취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MBC기자는 낡은 건물을 취재하다가 여진의 진조가 보이자 화들짝 놀라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한 KBS 기자는 방사능 피폭의 우려를 감내하면서 취재를 마친 후에 병원으로 달려가 방사능 검사를 받기도 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기자 정신이며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한 보도에서는

왜 저런 보도를 계속하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다. 예방 차원이라고 강변을 하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보도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다. 기자나 제작자가 상상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상정하고 전문가라는 인사들의 말을 덧씌우므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결과만 빚는 것이었다.

예상되는 사태와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재앙의 가능성만 되풀이하는 것은 바른 보도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라는 반론만을 만들어 내는 뉴스였다. 물론 재앙에 대한 경고가 무가치하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핵 재앙 공포 확산 보도는 특히 뉴스 전문채널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MBN과 YTN에서 두드러졌던 것 같다. 3월15일과 16일 방송사들의 일본 지진피해도

기 생방송은 적절했다고 평가한다. 시청하면서 방송이 참 잘한다는 생각을 했다. 출연한 NHK 서울지국장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말에 수긍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두 나라가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가깝고도 따뜻한 이웃'으로 거듭나는 데 방송이 한 몫을 해주었구나하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일까? 늘 해오던 모금 방송보다는 훨씬 더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보였다. 그리고 자막으로 내보내는 "우리의 작은 손길이 일본의 내일을 선물합니다"라는 글귀 등도 돋보였다.

일본국민이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모자라는 참혹한 현실에서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질서정연함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는 시민의식을 보도한 것은 타산지석으로 귀감이 됐으면 한다. [4]

8면에서 이어집니다.

하고 행해진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연예계를 회오리친 연예기획사의 코스닥 우회 상장 바람이 음성적 접대를 확산시켰다. 전에는 배역을 따기 위해 연예인 스스로나 기획사 주선으로 제작사 사장이나 감독에게 성상납을 했지만, 코스닥 상장 바람이 불면서부터는 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을 활용해 전천후 투자자 접대에 나선 것이다. 연예산업의 기업화는 출발부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작했다. 연예 기획사들은, 특히 톱스타를 계약한 대형기획사들은 톱스타에게 들어간 엄청난 액수의 전속 계약금을 보전하기 위한 투자자 유치를 위해 신인 급 소속 연예인을 접대용으로 적극 활용했다고 전해진다. 톱스타를 보유한 기획사는 톱스타 한 사람을 위해 특수차량, 로드매니저, 의상비, 홍보비 등 고액을 지출해야 한다. 톱스타를 모셔 존재감을 높인

기획사는 그 소요 비용을 소속 신인 연예인을 접대부로 내세워 투자자를 유혹한다. 톱스타 연예인 한 명의 계약금만 10억 원대다. 톱스타에 나가는 고비용은 신인급 연예인들의 희생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술 접대나 성상납은 대부분 당사자와 상관없는 기획사의 투자유치 사업 때문이다. 신인 연예인을 이용해 배역과는 상관없는 다른 돈벌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재주는 신인들이 부리고 돈은 톱스타와 기획사가 챙긴다. 어떤 기획사는 소속 신인급 연기자들 영화나 드라마에 단역으로 얼굴만 출연시키고 아예 접대용으로 전용하기도 한다. 신인 연기자들은 굴욕적인 슬픔을 느끼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연예계의 현실이다. 굴욕의 긴 터널을 거쳐 스타로 탄생되면 성공이지만, 스타가 못 되면 인생의 낙락으로 떨어진다. 장자연처럼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한국 연예계의 문제점은 수익플랜 없

이 간판만 내건 기획사들이 신인 급 연예인들을 처절하게 착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재 폭발한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이번에는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 국회는 연예인먼트사업법을 제정하되 연예업체의 전문성과 도덕성 제고를 바탕으로 노동, 인권, 계약제도 합리화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특히 전속계약을 맺을 때 갑과 을이 평등하게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또 신인 급 연기가 톱스타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연예인 별로 회계를 분리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와 성매매 및 풍속관련 위반자 등은 연예사업자가 될 수 없도록 관계법에 꼭 넣어야 한다. 연예사업자가 예술인들의 인권과 이익을 침

해해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못 박아야 한다. 이런 점이 법과 제도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아이돌 스타와 전속사와의 분쟁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국내 연예인먼트업계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한류열풍을 선도하고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공정 계약 파문과 추문이 그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와 연예산업계는 낙후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할 기회를 놓쳤고, 한류열풍의 호기도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늦었지만 재 폭발한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연예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과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할 해야 한다.

제2, 제3의 연예계 장자연 사건을 방지하려면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리스트 진상을 밝히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 연예사업의 구조적 모순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4]

한국 언론학 토대 마련... ‘梨花의 추억’에

“치열하게 취재현장을 누비며 특종을 남긴 기자도 아니었는데 나서기가 쑥스럽군요”

安光植 본회 회우는 언론계를 잠시 거쳤을 뿐 평생을 학자로 지냈기에 “선뜻 나서기가 주저된다”고 발문을 연다.

지난 3월 18일 홍대입구 한 일식당에서 반주를 곁들인 점심을 먹으며 긴 시간 인터뷰를 했다. 30년 전 중앙대 신방대학원에서 安 교수의 ‘보도연구’ 강의를 수강한 인연이 있어 더 살갑고 반갑다. 이마에 잔주름이 늘었을 뿐 화색이 감돌고 건강미가 넘친다. 인터뷰라기보다 언론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총각교수시절 ‘주니어 저널리스트’(1968년 9월 30일자)에 게재된 대학생기자가 쓴 인터뷰에서 “멋지게 파도치는 머리에 항상 웃음기 가시지 않는 입 언저리의 까만 사마귀가 애교 있다”고 표현한 사마귀는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잔잔한 미소도 여전하다. 학생들을 빠져들게 만드는 교수법과 유머와 재치 넘치는 명 강의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특히 이론에 치우친 신문학을 현장 위주의 실습과 접목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 “학생들에게 기사자료를 주고 기사작성을 시킨 뒤 수정하여 면담까지 하면서 ‘보도기사론’에 열성을 쏟았다”고 회고한다.

대학 재학 중 언론계에 첫발

지난해 연말 조판 발행 후 최근 재판을 찍은 ‘팔순 양띠 교수들 이화사랑 반세기’의 독자 반응을 묻자 “재미있게 읽었다고 합니다”며 담백하게 대답한다. 김활란 박사를 추모하는 ‘백인화’의 모임에 초청 받아 강연도 했다는 것. ‘이화사랑 반세기’는 이화에서 30년을 봉직한 安光植(언론학)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김영일(영문학), 김영호(독문학), 김재은(심리학), 서광선(기독교학) 등 여든 살의 동갑내기 5명의 공저. 후학들을 가르치며 겪었던 보람과 기쁨, 격동기의 고뇌와 숨은 이야기를 담백하게 풀어 낸 감미로운 추억담이다.

우리나라 知性史와 大學史, 社會史의 소중한 기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양띠 교수들의 공통점은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던 때에 태어나 이화여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쳤고, 1996년 정년퇴임했다는 것. ‘희생하라, 봉사하라’는 기독교 정신을 양처럼 묵묵히 충실하게 따랐다는 점이다.

언론학 교육 초기의 토대를 다진 安光植 교수는 정년퇴임 후에도 연구와 집필로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2~04년 본회가 주관한 ‘한국의 언론자유 평가’ 프로젝트 편찬회의 공동의장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저사에서 술회했다.

安光植 회우는 대학 재학 중(서울대 영문학과) 6·25 전쟁이 터지자 공군 하사관으로 자원 입대했다. 생리에 맞지 않아 다시 해병대 통역장교를 지원, 대위로 제대한 국가유공자다. 해병대 장교 시절 원산 앞 여도에 복무하면서 포탄이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33>

회우초대석

安光植

인터뷰 이규섭 (본보 편)



安光植 회우는 “신문은 활자매체의 古典으로 차별화와 경영합리화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날아오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영을 즐겼던 낭만파다. 1955년 제대 후 복학을 했고 이듬해 영자신문 ‘코리아리퍼블릭’(대한공론사, 코리아헤럴드 전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고, 외신부장을 지냈다. 뉴욕 UPI통신 본사 국제부에서 근무했고, W. R. Simmons, Inc.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1963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MS 석사 학위를 받고 서강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언론계로 복귀하지 않고 학계로 진출한 동기는?

“1960년대는 한국의 언론자유가 제한적이었고, 기지를 평생 직업으로 삼가에는 회의적이었지요. 각 대학에서 신문학과가 신설되기 시작하면서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개척단계에 있어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당시 외국에서 언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여서 어느 대학을 택하느냐가 관심사였다고 한다.

이대 강단 ‘우연 아닌 필연’

-미호으로 이화여대를 선택한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대째 기독교인으로 감리교와 인연을 맺어 온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의 선친(안신영 전 기독교방송 국장·배재교 교장)은 감리교 대표로 이화학당

50년대 英字紙 · UPI통신 근무하다 梨大교수로 學界진출... 언론 중재의

이사를 지냈고, 1930년대 초 이화의 교가를 작곡한 안기영 이화여전 음악과 교수가 백부로 이화와의 인연이 깊습니다. 모친(김영복) 또한 이화여전 출신으로 졸업 후 미국 감리교 선교사가 설립한 공주영명학교 교사를 지냈고, 이모 또한 이화여전을 나와 어렸을 때부터 이화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고 말한다. 당시 감리교 감독을 지낸 이환신 목사의 추천으로 김옥길 총장을 처음 만났고, 이화여대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고 한다.

-安 교수는 저서에서 “이화에서 남자교수로 일한다는 건 여러모로 부담스럽지만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라고 했다. 부인 林淑子(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 교수·전 이화여대 가정과학대학장) 교수와의 몰래 데이트는 어떻게 했는지?

“데이트는 학생들의 눈을 피해 교외 일영과 송추에서 주로 했어요. 1971년 학생들 모르게 극비리에 결혼했습니다. 이화대학 교수끼리 결혼한 것도 화제였고 데이트는 주로 어디서 했고 어떻게 심사되었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지요.”

-대학강단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부임 후 처음 들어간 3학년 학생 60명 전원에게 배스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켰어요. 당시 서울의 TV 시청자 6만 가구를 모집단으로 600가구를 선정하여 면접조사를 했지요. 그 결과는 ‘신문평론’(1968년 가을호) 특집부록에 게재되었고, 각 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학과의 위상을 높인 게 기억에 납니다.” 학생들과 함께 농촌봉사활동을 편 것도 보람이었다고 한다. “80년대 농촌의 열악한 환경과 이농현상, 가난과 교육문제, 체념의식 등 봉사 활동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난마처럼 얽혀 안타까웠다”고 덧붙인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이화여대에 정착한지 4년 쯤 되던 해, 세 군데 대학에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김옥길 총장과는 첫 면담 때 “남자교수들이 여자대학에서 때로는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 언제라도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좋다”고 하여 떠나는 문제를 상의 드렸지요. “생각해보자”고 하시더니 학보사 주간으로 발령

담긴 ‘知性의 향기’

· 코리언 리퍼블릭 외신부장
· 이화여대신방과 교수, 명예교수(현)
· 한국언론학회 회장 등 역임

집위원 · 칼럼니스트))

을 내는 바람에 발목이 잡혔죠”
학보사 주간 7년은 유신헌칙과 ‘반
유신 운동’이 맞물려 파란만장한 악몽
과 같은 시절이었다고 회고한다. 사실
필화사건, 당국에 의한 학보 폐기처분
배부중지, 재 조판 등을 거듭하며 시련
을 겪었다는 것. 또한 영문과에서 만들
었던 영자 신문 월간 ‘Ewha Voice’와
계간 ‘책 소식’까지 떠맡아 학문 연구는
물론 강의조차 부차적인 임무였고, 학기

과 희망을 품고 공부했던 컬럼비아대학
교 교환교수로 나가 학문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큰 보람이자
영광이었지요.” 安 교수는 뉴욕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길 정도로 뉴욕 마니아다.
‘뉴욕타임스’를 손쉽게 읽을 수 있는 것
도 행복이었고, 링컨센터 등을 누비며
세계 정상급들의 음악을 듣고 다양한 문
화를 향유할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라고
여긴다.

-80년대 접어들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친것 같습니다

“1985년부터 1993년까지 언론중재위
원회 위원과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오보
피해규제를 위해 정정 보도를 하도록 중
재 역할을 했고, 언론의 윤리적 위상 제



1996년 정년퇴임 기념 출판기념회 때 제5회 신방과 후학들과 함께.

다 60년대 미국유학 위 · 학회등서 맹활약

중에는 토요일도 없이 지낸 슬픈 교수시
절이었다고 한다. 학보와 정보당국과의
갈등, 학생들과의 마찰 속에서도 조정역
할을 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게 여간 힘
든 일이 아니었다는 것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대학보’가 다
른 대학신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면서요

“그렇습니다. 70년대 대학사회에서 학
생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자신들이 ‘학
교의 주인’이란 인식으로 목청을 높였어
요. 그 결과 학내 문제를 유난히 많이
다뤄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교내·
외의 지적도 받았어요. 또한 1974년 ‘이
대학보’ 창간 20주년을 계기로 세로쓰
기 체제를 가로쓰기체제로 바꾼 것은 혁
신이었습니다.” 그 뒤 우리나라 일간신
문들은 1985년부터 부분적으로 도입하
기 시작하여 1995년부터 전면 가로쓰기
체제로 전환되어 학보가 선도적 역할을
한 셈이다.

언론정책 시정, 방송개혁 역설

-학보사 주간을 그만 둔 뒤의 반전은?

“고생 뒤에 나이 온다는 말은 맞습니
다. 1978년부터 1년 동안 젊은 시절 꿈

고에 남다른 노력을 쏟
았습니다.” 5공 시절
언론통폐합을 단행하며
‘공영방송’을 표방 할
때 미국의 공공 텔레
비전에 관한 연구(한
국문화연구원 논총 제
40집, 1982),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의 유형별 분석 고찰’(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49집, 1986) 등 많은 논문을 통
해 정부의 언론정책 시정과 방송의 개혁
을 역설했다. 이밖에도 安 교수는 언론
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방송위원회, 언론
연구원, 관훈클럽, 신문편집인협회 등
언론단체 주관으로 열린 각종 세미나에
서 한국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을 제시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1996년 정년퇴임 후에도 이화여대 명
예교수’라는 직함으로 언론중재위원, 국
회방송자문위원,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장
등을 맡아 한국언론 발전에 기여했다.

신문은 활자매체의 古典’

-정보기술의 발달과 TV종합편성채널 편
성 등 언론환경이 많이 변했다. 활자매
체의 생존 전략은?

“인터넷 등에 밀려 활자 매체가 사라
질 위기라는 우려가 많지만, 신문은 존
속되리라 전망합니다. 수세기가 흘러도
클래식이 살아남듯이 신문은 활자매체
의 고전입니다.” 영상매체와 차별화 된
콘텐츠 개발과 경영합리화, 사명감과 책
임의식을 가지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

生活斷想 |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나는 매년 한번씩
살아 있다는 증거 제
시로 집주소 성명 생
년월일 등을 자필로
적어 보내는 곳이 있
다. 좋아서 하는 일
은 아니지만, 마냥
싫은것만도 아니다.

일본(日本) 동경에
있는 일본연금기구
(日本年金機構·옛
社會保險廳)는 계속
해서 연금을 받을 권
리가 있는지의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매

년 생일 한 달 전에 ‘연금수급권자현
황계’를 작성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보
내오는 것이다. 살아 있는지, 무슨 변
동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금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이 통
지서를 받았을 때 “내가 부어온 월부
금(연금)을 내가 돌려받는 것인데 이
런 거추장스러운 일까지 해야 하는
가...”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주
만나던 친구인 재일한국인단체의 간부
에게 “이거 너무 하는 것 아니요?” 라
면서 통지서를 보였다.

“그렇지 않아 이 사람아. 이젠 1년
에 한 번씩 생일을 앞두고 자기 건강
을 챙기라는 신호로 받아 들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약처럼 살아야해. 죽으
면 연금이 안나와. 살아서 숨 쉬는 것
이 돈을 버는거야” 라는 대답이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달에 자신의 건강
을 체크하고, 숨지않게 호흡을 계속
하고 있으면 돈이 생긴다... 연금생활
이 길다는 그 친구의 대답이 아주 신
선하면서도 유니크하게 들렸다. 그 후
친구의 말 탓도 있었겠지만, 나도 모
르게 일기장에 건강에 대한 메모를 적
는 습관이 생겼다.

나의 건강상태는, 혈압은 아침시간
에 높고 운동 후에 낮아지는 본태성고
혈압. 혈관은 좁아져 협심증(狹心症)
을 거쳐 카테테리치로 심장의 왼쪽 관
동맥(冠動脈)에 스텐트를 삽입했다.
그리고 환절기 마다 감기에 걸려 만성
기관지염 까지 되고, 요산(尿酸)치와
중성 지방치는 높지만 혈당은 비교적
안정되어있다. 이렇게 성한 장기란 하
나도 없을 정도로 엉망인 몸 상태의
변화를 일기장에 기록하다 보면, 의학
전문서적 까지 뒤지게 되어 제법 많은
의학상식을 터득하게 되었다.

게다가 병력을 한눈에 훤히 알 수



김귀제

· 본회 원로 회우
·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있도록 정리해 놓
은 것이 큰 수확이
다. 심장의 관동맥
을 넓히고 지탱하
고 있는 스텐트는
삽입한지 몇 년째
되는지, 폐렴 구균
(球菌) 백신을 접
종한 날짜는 언제
인지, 기타 생화학
(生化學)·혈액 검
사의 변이 등, 모
든 건강상황을 금
세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얼마전 일본에서 100세가 넘는 부친
의 사망신고를 안하고 연금을 계속 타
오던 아들이 붙잡혀 사회문제가 되었
다. 이에 자극을 받은 우리나라 보건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00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2천 3백여명을
방문조사한 결과, 12명이 사망했는데
도 유가족이 신고를 안하고 연금을 받
아온 사실이 판명 되었다 한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노후
대책의 하나로 각종연금이 붐을 일으
키고 있는데, 그 실태와 운영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며칠전 내키지
는 않았지만 국민연금 공단 측에 전화
를 걸어 일본처럼 ‘연금수급자현황계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다.
앞으로 국민연금수급자가 증가하게 되
면 간혹 사망신고를 안하고 부정연금
을 받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니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다.

이윽고 국민연금생활지도 연금을 받
는 한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라는 뜻
의 현황을 매년 보고해야할 때가 올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심각하
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월급쟁이가
매일 아침 출근부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여기면 되는 것이기 때
문이다.

생일이 가까워지면 여러 경로를 통
해 각종 알림이 온다. 대개가 축하 메
시지이거나 생일파티개최, 건강기원
등 덕담이 담긴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연금기구에서 오는 통지문안은 자필서
명을 하는 등 심신을 가다듬게 하는
신기한 괴력이 담겨 있는 알림이다.

덕담대로 살고, 여생을 활용하기 위
해서는 그만큼 힘을 써야 한다. 건강
체크를 더욱 정밀화 하고 취미생활을
향상 시키며, 자기보존(自己保存)에
충실을 다해야 한다. ㉞

조한다. 安 교수는 <신문과 정부와의 갈
등>(1970), <세계의 신문 공저>(1986),
<커뮤니케이션과 사회변동>(1984), <한
국언론과 사회>(1996), <한국언론과 투
표행태 연구>(2008) 등 저서와 수많은
논문을 남겼다.

그는 지금도 이화여대 캠퍼스가 바라
다 보이는 신촌동에서 35년 쯤 살고 있
는 영원한 이화인이다. 구내에 있는
은행, 매점, 우체국, 안경점, 서점, 구독
방 등을 들리기 위해 거의 매일 드니들
어 학교가 집의 일부 같고 생활터전이

된 것 같아 퇴직한 사실이 믿어지지 않
는다고 한다.

부인 林淑子 교수 사이에 1남 1녀, 장
남 世炫(39)은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석
사, 영국 런던정경대학원(LSE)에서 ‘에
너지 안보’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
시립대 교수, 장녀 美炫(38)은 러시아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피
아노를 전공 한 뒤 13년 넘게 유럽에서
연주활동을 펼쳤다. 미국 예일대 음대
초빙 아티스트를 지냈고, 현재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 온 가족이 교수다. ㉞

21회 '신문사진 人間愛賞' 수상작 발표

大賞

울어버린 강철 사나이들

- 동아일보 변영욱 기자

대한언론인회가 신문 보도 사진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신문사진 人間愛賞' 제21회 수상자로 대상에 '울어버린 강철 사나이들'의 동아일보 사진부 변영욱 기자, 우수상에 '집념,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의 뉴시스 사진부 이동원 기자가 선정됐다. 또한 장려상에는 '천안함, 남겨진 가족의 슬픔'으로 머니투데이의 이명근 기자, '세계를 제패한 소녀의 유쾌한 웃음'의 세계일보 이제원 기자, '사랑스런 눈길'의 헤럴드경제 박해묵 기자가 각각 선정됐다.

'신문사진 인간애상'은 해마다 대상, 우수상, 대상을 편집한 기자에게 주는 '편집상'으로 시상해 왔으나 올해는 장려상을 추가로 시상기로 했다.

장려상은 대상, 우수상에 버금가는 작품실력으로 소재의 발굴, 셔터찬스, 카메라 앵글, 구도의 정리 등을 조금만 노력하면 입상 가능한 기자임을 인정하고 이를 장려하며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3회의 장려상 경력이면 우수상수상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심사는 1차로 인간애상 수상자대표들과 한국 사진기자협회장 등이 15점을 엄선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신문동우회 심사위원들이 다섯 작품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신문의 날인 4월 7일(목)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역대수상자, 한국사진기자협회, 대한언론인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올해로 스물한번째를 맞이한 '신문사진 인간애상'은 4·19 혁명 당시 현장을 취재한 사진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한국신문사진동우회(회장 박용운·본회 회우)가 인간애를 실천하며 노력하는 후배기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991년에 제정됐다. [본문]

심사평

대상을 수상한 '울어버린 강철 사나이들'은 연평도 앞 바다에서 북한잠수함에 의해 폭침한 천안함 인양작업을 위해 낮은 수온과 빠른 유속 등 악조건 아래 잠수를 반복하다 불귀의 사고를 당한 해군 특수전단 수중과과대(UDT) 한주호 준위의 장례식이다. 평소 술선수범하며 생시를 같이했던 한주호 준위를 후배 UDT대원들이 "우리는 사나이. 강철의 사나이, 나라와 겨레위해 바친 이 목숨, 믿음에 살고 의리에 죽는 사나이, 아 사나이 뭉친 UDT"(부대 군가)를 부르며 선배를 떠나 보내는 분위기가 잘 표현되었다.

우수상 '집념,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국제탁구여자대회에서 서브찬스를 노리고 있는 나탈리아(폴란드)의 진지한 표정이 잘 포착되어 있다. 2000년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에서 열한살의 나이로 참가해 최연소 출전기록을 세우고 2004년 아테네 장애

인 올림픽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였으며 역사상 장애인 올림픽과 올림픽에 동시에 출전한 선수는 나탈리아 파르티카가 처음이다.

장려상 '천안함, 남겨진 가족의 슬픔'은 천안함 희생장병의 합동안장식이 엄수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아들의 불안함을 붙잡고 오열하는 아버지의 애절한 심정이 잘 묘사되었다.

장려상 '세계를 제패한 소녀의 유쾌한 웃음'은 U-17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한 한국 대표팀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기자회견에서 트로피 등을 보이며 환하게 웃는 어린 소녀들의 밝은 표정이 잘 나타나 있다.

장려상 '사랑스런 눈길'은 서울시에서 최고령으로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한 조월화(76세) 할머니를 수강생들과 함께 축하하며 자랑스럽고 기특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노 부부의 애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본문]



장려상

세계를 제패한 소녀의 유쾌한 웃음

- 세계일보 이제원 기자



장려상

사랑스런 눈길

- 헤럴드 경제 박해묵 기자



시상 4월 7일 프레스 센터서

우수상

집념,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 뉴시스 이동원 기자



장려상

천안함, 남겨진 가족의 슬픔

— 머니투데이 이명근 기자



대상 — 변영욱



‘올어버린 강철 사나이들’을 대상작으로 뽑아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망원렌즈로 찍은데다 주인공들 숫자도 많아 언뜻 보면 평범한 사진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주인공들은 한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진에는 격렬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침몰한 천안함에 갇혀 있을지도 모를 후배들을 구하려고 한주호 준위는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렸다. ‘사나이 UDT’를 합창하며 눈물을 흘리는 후배 대원들의 모습은 진심이었다. 천안함 침몰의 이유에 대해 당시만 해도 조작설이 있었고 선배의 희생을 목격했던 진짜 사나이들은 아박한 세상인상에 가슴이 먹먹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군인들의 눈물에는 많은 것이 담겨있었다. 심사를 맡으신 원로 언론인 선배들의 따뜻한 시선에 그래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수상 — 이동원



올림픽이 끝나면 국민들의 관심은 금방 냉담해 집니다. 2010년 12월 겨울 평소와 다름없이 스포츠일정을 챙기던 중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10대 한항공배 프로투어 그랜드 파이널스 국제탁구대회’ 예선리그 여자단식이 열리는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비인기종목은 기사 중요도면에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결승전도 아닌 예선전은 더욱 그렇겠죠. 그날도 사실 ‘누가 여길 오겠어?’ ‘대충 일하고 가자!’는 맘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많은 파란색 테이블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여자선수들을 보았고 유독 그중에서 저의 눈길을 끄는 선수가 있었죠. 장애를 안고 있는 팔로 서비스를 넣는 선수입니다. 나탈리아 파르티카라는 폴란드 선수죠. 그 모습은 가히 저에게 충격이상이었습니다. 세계 정상의 선수들을 상대로 싸우는 그녀의 불굴의 모습은 장애인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투자가 넘쳤습니다. 그녀의 기록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말이 ‘장애는 걸모습이 조금 다를 뿐이고 조금 불편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천배 만 배 이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탈리아 파르티카는 2000년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에서 열 한 살의 나이로 참가해 최연소 출전기록을 세우고, 2004년 아테네 장애인올림픽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 그 후 폴란드 올림픽 대표팀 선발 경쟁에서 실력으로 대표팀에 뽑혀 탁구 역사상 장애인 올림픽과 올림픽에 동시에 출전한 선수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그녀로 인해 비장애인들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보기 좋게 걷어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저부터 비인기종목에 대한 관심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사진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은 ‘사진기자는 늘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관념에 젖어 있던 제게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조심 잃지 않는 사진기자가 되겠습니다.

장려상 — 이명근



47명의 순국자를 남긴 천안함 폭침 사건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해 오열하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천안함 유족들에게만 국한 된것이 아닌 우리 민족 전체의 남겨진 슬픔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아픔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될 일임을 확실하다.

장려상 — 이제원



세계를 제패하고 돌아온 어린소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에게 향한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무관심속에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참으로 대단한 소년들에게 이 상을 드립니다.

장려상 — 박해묵



조월화(여·76세) 할머니가 기나 긴 세월을 돌아 꿈이라는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시 최고령 고임검정고시합격이란 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옆 자리에는 든든한 남편 분이 계셨구요. 돌아돌아 온 길이기에 축하하는 남편분의 눈길에는 많은 감정이 담긴 듯 합니다. 아내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노부부는 또 기다리고 있을 어느 역을 향해 꿈이라는 직행열차를 타고 출발하십니다. 두 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십에 그리고 그 꿈을 이름에, 또 다른 꿈을 꿈꿈에.

인간애상을 시상하며

‘신문사진 인간애상’은 이제 21회를 맞이하였다.

격동의 4·19 민주혁명을 비롯하여 많은 사건현장을 정신 없이 기록하다 정년퇴직 후 조용히 회고 하니 현역시절 당시 격동의 와중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소중한 ‘인간애’를 나는 깨닫지 못했음이 후회되어 뒤늦게나마 후배들에게는

이를 깨우쳐 주려고 몇몇 퇴직 사진기자들과 ‘신문사진 동우회 인간애상’을 제정한 것이 ‘신문사진인간애상’(약칭 ‘인간애상’)의 시초였다. 1991년, 구치소로 끌려가는 아들을 땅을 치며 절규하는 촌노모의 ‘갑작새!’를 선정 시상한 것을 위시하여 ‘정신대 할머니의 한 맺힌 눈물’, ‘구치소



박용운

- 본회 회우
- 한국신문사진 동우회 회장

로 출발하는 노태우씨, ‘진압과 온정, 배신 하는 인술’ ‘패자를 위로하는 승자’ ‘필사의 구출’ ‘하늘나라 아빠에게 경례’ 등으로 그중에는 국제적인 시사 주간지 ‘News Week’ 표지로 게재된 것도 있다.

그동안 해마다 시상비용을 염출해오다 2007년부터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언론인회에 시상기금으로 1억 원의 목돈을 기탁 시상해 오고 있다. 2010년에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구제역 파동’ 등 큰 사건이 있었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월드컵’ ‘여자 월드컵’ ‘세계 장애인 탁구 선수권 대회’ ‘아시안 게임’ 등 많은 사건 행사 등으로 사진기자들은 숱돌릴 시간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신문사진 인간애상’은 이러한 사진기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보다 좋은 사진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많은 분발을 바란다. [4]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후 10년간 살아 있어야

-증여세 없이 가족에게 줄수 있는 자산 한도액은 10년동안 누계로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인데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상속세로 과세되고 증여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직계존비속은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이다.

-증여세 면제는 증여받은 후 5년 뒤에 팔면 증여세도 물지 않고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된다. 또한 임대·금융소득 분할로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다주택자가 양도세 절감 방안으로 증여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개정안 세율이 아직도 세칭 '부자세'로 지목되어 국회에서 보류되고 있다

고가 1주택 배우자간 증여는 신중해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12~80%)효과를 일부 희생해야 하고 초과금액의 증여세와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효과는 줄어들어 사전에 충분히 검토후 증여에 임해야 하겠다.

-자산규모가 크거나 지속적인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될 경우 10년 단위로 사전 증여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공제가 10년마다 가능하다.

-증여는 매년 4월말 이전에 하는 것이 전년도 기준을 적용하므로 절세

老後설계와 재테크 ⑤

배우자 증여 6억까지 비과세

효과가 있다.

아들의 빚 대신 갚

아쉬도 증여세 대상

-아들의 사업자금을

을 위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

로 대출해주었는데

아들이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질

상황에 직면해 하는

수 없이 아들 대신

채무를 갚아주었다

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

-부모에게 빌린

돈은 원금과 이자를

오랫동안 갚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

된다. 다만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린

후 변제한 것이 채무부담 계약서, 이

자 지급사실, 담보제공, 금융거래 등

에 의해 확인이 될 때는 증여세를 부

과하지 않는다. 또한 자금을 빌리고 3

개월 내에 변제한때는 이런 증빙

이 없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 만약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 등 다른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렸다면 빌린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에 한해 증여세 여부가 결정된다.

현금 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할

수도.

-현금과 예금은 액면금액이 바로

시가로 적용되지만 토지는 개별공시



홍용수

- 본회 회우
-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
- 전 한양대 겸임 교수
- NSI자산관리 연구회 회장

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하기가 비교적 어려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증여는 모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여받은 후 3개월 전후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이내에 돌려받아

야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담부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유리

-부담부 증여란 어떤 자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자의 채무까지 함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증여하는 게 아니라 채무를 함께 넘겨주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이 더 줄어든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세금을 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또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과정에서 생긴 채무는 꼭 본인 자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매각보다 자녀에 증여하는게 유리

-1세대 다주택일때 양도소득세가 종과세로 실시될 경우는 매각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게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증여하기로 결정했다면 가급적 증여받는 사람 수가 많으면 세금부담이 감소된다.

주가 급락시 자녀에게 주식 또는 펀드 증여 고려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 가입자들은 주가 급락기를 이용해 손실 난 주식 또는 펀드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식이나 펀드 증여세는 투자 원금이 아니라 증여할 당시의 평가금액이 과세기준이라는 점이 절세를 위해 매력적인 요인이다.

증여 시기 잘 골라야

-증여를 할 경우 가급적 저평가된 시점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파트나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기준시가 변동 날짜를 기준으로 상승이 예상되면 그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승에 임박하여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부동산 증여가액은 시가기준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은 시가로 한다.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전후에 실제로 이루어진 매매가액 등(매매가액, 감정가격, 수용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세대를 뛰어넘어 증여하면 30%를 더 세금을 내야한다. 단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신고한 때에 비해 30% 이상 더 부과된다. [4]

가짜 박사학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신정아씨가 에세이 <4001>의 출간 기념회를 가졌다. <4001>이란 신씨가 수감돼 있을 때의 수인번호다. 신씨의 책은 초판에 5만부를 찍었다고 한다.

이 책을 두고 사람들은 '신씨의 책' '자서전' '자전적 에세이' '수필집' 등으로 말하고 있다.

수필이란 말이 책이름으로 쓰인 세계 최초의 예는 이제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 南宋대 紅邁(1123-1202)가 지은 溶齋隨筆(74권 5집)이다. 紅邁는 서문에서 "나는 버릇이 게을러서 책을 많이 읽지 못하였다. 생각나는대로 그때그때 기록하여 그 앞뒤를 다시 정리하지 않았으므로 책이름은 수필이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어 수필은 글자 그대로 붓가는대로 쓴 글임을 밝혀주고 있다.

그렇다면 <4001>도 수필임에 틀림없다고 보겠다. 그런데 작가 공지영씨가 신정아씨의 자전적 에세이 <4001>(사월의 책)에 대해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는 보도다. 서문과 본문의 문장이 너무 달라 대필의혹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다. 수필이 대필집인 셈이다. 아니면 이

'4001'은 더 반성하라

책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할지가 궁금하다. 신씨의 책 <4001>에는 신씨가 지난 2007년 1,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의 수감생활과 문화일보와의 누드파문, 큐레이터로서의 활동 시절,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의 이야기가 적혀있고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 모일건 C기자 등 수많은 거물급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돼있다. 사람들은 이처럼 신씨의 책에 실명이 거론돼 있다는 것은 어떠한 복수를 위한 비수가 보인다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책을 팔기위한 수단이라고도 하는 등 얘기가 많다.

수필형태의 책 내용에 실명을 거론



이선희

- 본회 회우
- 전 경인매일 논설위원

하며 공격적 폭로적 글을 썼다면 과연 세상에 내용을 만한 책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의문이다. 그것도 수감생활을 한 사람이 자기반성의 시간이 짧아서 그랬을까도 생각된다. 또 돈 생각을 먼저 하는 출판사와 청송군진보면 시골출신 여자의 특집 합작이 아닐까도 생각된다.

사람들은 흔히 초등학교만 다닌 동창을 만나면 나이 들어도 초등학교 때 버릇과 사고력이 그대로 있고, 중고등학교만 다닌 동창을 만나면 중고등학교 때의 버릇과 사고력이 그때 그대로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정아씨는 자기말로 박사과정을 나온 버릇과 사고력에서 이런 책을 냈을까, 아니면 아무런 학위도

없이 고등학교졸업 정도의 사고력에서 이런 책을 냈을까 의심스럽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도덕으로 묶어 놓을 수도 없고, 인간은 교육으로 선회할 수도 없으며, 인간은 전체적 훈련으로 완전히 개조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모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도덕관념을 갖고 올바른 교육을 받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한다면 사람들은 차츰 개조되어 나아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신정아!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지속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석·박사 등의 학위를 남이 따주는걸 당연시 하는데엔 할말을 잃게 한다는 반응이다.

책의 입장에서 보면 판매효과는 백배다. 그러나 이런 책의 운명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 신씨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지속적인 참 행동을 보여줄때 죄를 넘어 사람들은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 갈 것이다.

비수를 품고 폭로하는 책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반성하고 제2의 인생설계를 그린 책을 냈다면 독자들의 가슴도 뭉클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4]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엽에 걸쳐 미국에선 성인병에 시달리는 국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심장병 치료비 만으로도 미국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자 난리가 났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 아폴로계획에 쏟아 붓던 엄청난 예산의 일부를 암 치료기술의 개선에 돌렸으나 암 환자는 늘어나기만 했다. 그래서 치료보다는 예방대책에 주력하기로 방향전환을 하게 된다.

1975년 포드대통령시대에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였던 조지 S 맥거번 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양문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미합중국상원 영양문제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마련하게 된다. 이른바 '맥거번 보고서'다. 그 보고서의 골자는 "갖가지 만성병은 육식 중심의 잘못된 식생활이 빚은 것으로서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상적인 육식 편중으로 다량의 지방, 당분(설탕), 염분이 심장병, 암, 뇌졸중 등의 질병에 직결되고 있음을 지적, 영양의 섭취방법과 식사 내용을 고치도록 경고했다. 맥거번 보고서는 영양의 편중과 식사 내용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남을 지적한 것이다.

영양문제특별위원회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에 대하여 영양(식사)과 암의 관계를 조사하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 생겨난 것이 '디자이너 푸드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것이

다. '기획식품 프로그램'이란 뜻이겠다. 야채, 과일, 곡류, 해조류 등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암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수만 종류의 화학물질을 조사하고 나아가 역학조사의 데이터를 모아서 해석한 결과 약 600종류의 화학물질에 암 예방효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물질을 포함한 식품을 효과가 뛰어난 것 순으로 피라미드 모양의 삼각형을 삼등분한 것이 디자이너 푸드의 구성이다. 삼각형 꼭대기로 갈수록 암의 예방효과가 높은 것이다. 꼭대기 삼각형에 들어 있는 것이 마늘, 양배추, 콩, 생강, 감초, 셀러리, 당근 등이다. 위로부터 1단계 아래, 삼각형의 중간에는 양파, 녹차, 감귤류 곧 오렌지, 레몬, 귤, 현미, 통밀, 토마토, 가지, 피망, 브로콜리, 싹 양배추 등이고 맨 아래 쪽에 멜론, 박하, 오이, 엄뎡(귀리), 감자, 보리, 로즈마리 등이다.

서두가 길어졌지만 맥거번 보고서의 디자이너 푸드 일람표를 보고 나는 기분이 좋았다. 효과가 높은 상층부위

병은 낫는다 체험적 養生法⑥

맥거번 보고서와 食療의 세계



권도홍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의 식품일수록 나는 일상적으로 즐겨먹고 있으니 그렇다.

중국 사람들이 디자이너 푸드란걸 읽었다면, 더구나 식품을 연구하는 중국 학자가 디자이너 푸드를 보았다면 실소(失笑)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음식으로 병을 예방하고 고치는 식료(食療)의 의료체계는 그

옅음이 중국에 있다. 옅음은 하나라도 갈래는 여러개라 그 한 줄기는 허준의 동의보감으로 열매맺고 또 한 갈래는 일본으로 건너가 대화본초(大和本草)가 된다. 동의보감을 중국의 수입품을

췌다시피 하지만 식품으로 챙기는 가지는 30가지 안팎이다. 그중에서도 울무의 효능등급은 상지상상(上之上上)에 든다. 맥거리 중에 최고라는 뜻이다. 울무는 구황식품(救荒食品)에 든다. 흉년이 들었을 때 주린 백성(饑民)들이 허기를 채우는 먹거리이다. 맛이 없다. 소화도 덜 되는 편이다.

그러나 권력가진 자나 부자는 잘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울무의 약성(藥性)은 뛰어나다. 당뇨병에 효능이 있는 "소갈(消渴)은 멎게"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장을 도우며(建脾

食品으로 웬만한 병은 물리친다

보세가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먹어서 고치는 먹거리 의료는 식물학과 약물학을 통합해서 일궈낸 중국의 본초학(本草學)이 그 바탕이 된다. 수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의학(漢醫學)의 큰 기둥이 본초학인 것이다.

미국이 미합중국상원영양문제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1975년에야 발표한 디자이너 푸드란 것이 중국은 이미 수천년전에 밝혀낸 본초학이고 보면 그런면에선 미국이 짐승들이라면 중국은 깊은 바다나 마찬가지로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을 시발로 송대 맹선(孟詵)이 엮은 식료본초(食療本草), 명대 이시진(李時珍)이 엮은 본초강목(本草綱目)이 본초학의 큰 흐름이요 또 한 먹어서 고치는 식료의 바탕이 된다.

신초본초경에 실려 있는 식품 수는 360가지로 상중하로 품등을 매겨 놓았는데 이시진의 본초강목 189종 중에 상(上)으로 분류된 것은 2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식료본초와 본초강목은 나의 애독서라 늘 읽어서 많은 종목을

益胃)" "몸이 뻣뻣할 때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을 도운다". 최근에 공자의 직손(直孫)이라는 사람이 엮은 <무병일신경(無病一身輕)>이란 책을 보면 울무에는 항암성분이 있으며 사마귀를 없앤다고 적고 있다. 맛이 별로인 구황식품, 힘있는 자는 먹지 않았을 울무에 뛰어난 약성을 부여한 것은 신(神)의 숨겨진 뜻이라고 볼 수 있다.

울무로 죽을 쑤어 오래먹으면 습비(濕痺)를 고친다는데 습비는 습기로 인하여 뼈마디가 저리고 쑤시는 병이다. 또 신장 기능의 저하로 수분배설이 부실하여 자고나면 얼굴이 붓는 수종(水腫)도 고치며 노인들이 잘 걸리는 대상포진(帶狀疱疹)예방에도 유효하다고 적고 있다. 대상포진은 살가죽(목·어깨·팔)에 띠 모양의 물집이 생겨 따갑고 아파 노인들에겐 고약한 병이다. 이 좁아진 울무가 만병통치식품 같지만 그 효과는 완만하고 미세하기 때문에 오래 먹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나는 울무를 약간 볶아서 가루로 만

들어 '월'에 타서 토마토1개, 귤1개로 저녁 한끼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섭취 칼로리를 꺾었을 때의 반 정도로 줄여 비쩍 말라 후배들이 잘 못알아 보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일종의 수신술(瘦身術)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생생하다. 살쥘 병원출입 잦은일에 비하면 외과외엔 병원에 갈 일이 없으니 다달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좀 아깝기는 하지만 그것도 보시(布施)라고 생각하면 괜찮지 않겠나.

상강(霜降), 겨울이 오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나는 '생강감초탕'을 끓이기 시작해서 첫여름까지 그걸 마신다. 생강감초탕하면 생강차를 연상하겠지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도 효능에서 생강차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강력한 항산화력과 면역기능을 강화하는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생강과 감초와 대추가 어우러짐으로써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처방이지만 2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오랜 처방이다.

생강200그램 정도를 잘 씻어서 얇게 슬라이스하고 감초2~4편(片)과 대추3~4개를 함께 넣어 1.8리터의 물이 1.2리터 정도가 되도록 끓여서 냉장고에 두고 하루에 한 두잔 따뜻하게 하여 마시면 감기에 는 최상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피로함과 면역기능을 강화시킨다. 나의 경우 늦은

밤에 책 읽다가 뜨끈한 생강감초탕을 마시면 체온이 평열이 36.5도에서 37도까지 오름을 체온계로 확인 할 수 있다.

늙은이 고별에 죽는다'는 말이 있다. 감기가 도져서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노인에게 치명적이다. 체온이 평열보다 약간 높을 때 면역기능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체온 면역력>이라는 일본책에서 알았다. 암은 미친 세포 하나로부터 시작된다. 때 일처럼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암세포를 생강감초탕으로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잡아 죽이면 암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는 갖고 있다. 개연성은 확실히 있다. 일본에 별치대가리도 믿으면 약이라는 말이 있다. 생강감초탕은 그런류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생강과 감초는 디자인 푸드의 꼭대기에 들어있으므로 항암식품이라는 개연성이 거기에 있다. 대추는 정력제이고 당뇨에도 좋은 식품이지만 많이 오래 먹으면 이빨이 상한다. '구식손치(求食損齒)'다. 본초강목의 기록이다.㉔

신묘년 무사산행 기원

본회 산악회 북한산서 시산제



시산제를 마치고 기념촬영.

북한산에는 춘설이 내려 나뭇가지마다 온통 하얀 눈꽃이 피었다. 봄바람까지 산우들을 반기고 있는 듯 포근하고 맑은 날씨였다.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안종우)는 지난 3월25일 오전 11시 북한산 향로봉 중턱에서 2011년(신묘년) 시산제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흥원기 본회 회장을 비롯 안종우 산악회 회장, 김재영 명예회장 등 회원 30여 명이 참석, 신묘년 무사 산행을 기원했다. 안종우 회장은 본회 산악회 발족이 올해로 32년이 됐으며 "산은 항상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또 회원 친목의 장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곳이다"라며 서로 돕고, 회원간 단합을 강조했다.

한편 시산제에는 본회에서 격려금과 흥원기 회장, 안종우 산악회장, 김재영, 이병대, 지용우, 정운중, 임현태, 강진형, 이상호, 황대연, 김영호, 최귀조 회원 등이 찬조금을 내놓았다.

산행 뒤엔 은평구 연신내 한식당에서 즐겁고 우정있는 뒤풀이 오찬을 했다.

시산제에 참석한 회원은 다음과 같다.

강진형, 김영호, 김재영, 나용경, 송두빈, 안종우, 안평선, 양성복, 여구만, 윤기병, 윤석웅, 이구열, 이병대, 이상호, 이우진, 이윤래, 이정세, 이종운, 이창호, 이태영, 임한순, 임현태, 정운중, 정창기, 조규진, 조성한, 지용우, 최귀조, 흥원기, 황대연 (가나다 순)㉔



지금은 변화를 위한 준비시간입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TV를 보고,
전세계 채널을 실시간으로 골라보는 세상!
우리가 만나는 미디어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만큼
코바코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광고산업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 코바코가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大韓言論人會 활동

‘延邊晨報’ 사장등 본회 방문

연변신보 蔡永春 고문과 路敦亮 사장등 임원진이 지난 3월 18일 오전 본 회를 방문 했다. 약 1주일 정도 체류 예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들 연변신보 임원진들은 “한국의 원로언론인단 체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대한언론인회가 매우 역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방문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대한언론인회 회원 및 운영현황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본회를 방문, 홍원기 회장(좌로부터 두 번째)과 환담하고 있는 연변신문 임원들.

고문·회장단 간담회 개최

대한언론인회 고문·회장단 간담회가 지난 3월 4일 12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다. 금년들어 첫모임인 이날 간담회는 출장 중인 이병대 부회장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해 대한언론인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해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참석한 고문·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이혜복 신우식 제재형) 명예회장(조창화) 상담역(김은구 윤익한 한기호) 감사(김호기 송효빈) 부회장(김성배 윤기병 이태영 정기정)

논설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대한언론인회 홍원기 회장은 3월 21일 낮 본회 논설위원들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클럽에서 있는 논설위원 간담회는 대한언론 지평 300호를 계기로 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본회 논설위원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김해도(편집고문) 문명호(논설고문) 상낙오(편집위원장) 구건서 구종서 김승웅 남시욱 박경식 손기상 손세일 여영무 윤상철 이광영 이덕순 이형 임한순 전신병 정성진 지용우 최병오



大韓言論 300호 지하철역 등 가두 배포

대한언론인회는 대한언론 300호 특집판을 발행, 청와대와 정부청사 국회 등 공공기관에 직접 배달하고 노컷 뉴스 배포조직에 의뢰, 2일 아침 서울 종로와 광화문 시청, 여의도 강남등 주요 지하철 역 승객들에게 배포했다.

대한언론을 지하철 승객들에게 배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우회 새해 첫 모임 가져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을 넘기고 개구리가 잠을 깨는 경침에 맞춰 대한언론인회 기우회(회장 정기정) 회원들이 지난 3월 11일(금) 오후2시 종로2가 비독세 계기원에서 새해 첫 후백대국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정회장을 비롯 김윤석 김세경 백환기, 윤기병, 이상우, 이성호, 이덕순, 이종기, 이태영, 최종수 회원 등이 참석, 수담을 통한 기량을 맘껏 뽐냈다. 작년 가을 비독대회 우승자인 이상우(A조), 이성호(B조) 회원은 역시 우승자의 실력을 과시했고 김윤석 총무, 김세경 회원도 단단한 기력을 선보였다. 이날 모임은 공식대회가 아니었는데도 매 대국 결과에 탄식과 아쉬움이 쏟아져 열기를 더 했으며 뒤풀이 저녁은 불고기와 냉면을 인주 삼아 소주잔을 나누며 노년의 회포를 풀었다.



토요건강포럼 갈수록 活氣

4월16일엔 심리치료 강연과 율동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와 대한성의학연구소(소장 이윤수)가 매달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요(건강)포럼이 오는 16일 오후 1시 50분부터 중구 명동에 있는 이윤수 비노기과 홀에서 열린다.



임춘희 심리치료사

강연 주제는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실천법’으로 연사는 임춘희 한국심성교육개발원 심리치료사(대체의학전문)이다. 임

연사는 이날 체운으로 오는 질병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올바른 식습관으로 혈액의 오염을 막기 위해 소식(小食)과 올바른 음식 씹기,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는 슈퍼푸드 4가지와 그 효능, 4차원 균형운동을 통한 대퇴부 강화 운동과 발마사지를 이용한 전립선 건강향상 포인트 등을 소개하고 건강물동도 선보인다. 한편 3월 19일 을지로 입구 이윤수 비노기과 회의실에서 가진 3월 건강강좌에 초청연사로 나선 李光榮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본회 회우)는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노후 설계’의 주제 강연에서 ‘노후 건강 설계’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였다.

이 이사는 고령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노후 설계는 결국 경제에 앞서 건강문제로 귀결되는데 이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꾸준한 건강관리가 관건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이사는 노후 건강은 몸 못지않게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며 우리는 지금 몸 보다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게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람이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혈압이 오르고 맥박과 호흡까지 빨라지기 마련인데 이러한 몸 안의 대사변화는 면역세포 수를 줄이고 세포 속에서 화를 내는 것에 상응하는 화학변화가 일어나 건강에 손

상을 준다고 하였다. 화자 되고 있는 테레사 수녀 효과(Mother Teresa's Effect)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었다.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가지면 우리 몸 안에서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나 세포기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어 자연치유

력을 크게 끌어 올리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행복감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일이 중요한데 남을 돕는 일이에 대한 해답이라면서 남을 돕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덕을 돕는 사람이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이 남을 돕는 일을 듣고 감동을 받기만 해도 자연치유력이 증진된다는 것이 이른바 테레사 수녀 효과라고 하였다. 또한 이 이사는 노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더 없이 좋은 것이 걷기 운동이라며 걷기를 하루 7,000보정도 켜 주 4~5회 할 것을 권했다.

이 이사는 이와 함께 노후 건강 설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죽음에 대한 준비라면서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생의 마지막 시기에 가족과 인사를 나누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우리 소망을 이루기 위해 죽음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 의식이 뚜렷할 때 사전의료의향서(事前醫療意向書: Advance Medical Directives)를 작성해서 이를 가족과 담당의사에게 알릴 것을 권고하였다.

강좌 후 이웃 맥주 집으로 자리를 옮겨 정담이 이어졌고 홍원기 회장이 스폰서를 자원하고 나서자 박수를 쳤고 이에 테레사 수녀 효과를 보려는 것이라 하여 함께 웃었다. 그러나 막상 계산은 최상목 회우가 썼다. 테레사 수녀 효과가 톡톡히 나타난 셈이다. [김휴선 회우 기]

(김휴선 회우 기)

4월 언론가 소식

서울경제 신문 사장에 이종환씨



한국일보사는 지난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겸 서울경제TV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종환 신임 서울경제신문 사장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1984년 견습 42기로 한국일보에 입사했다. 이후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장, 사회부장, 산업부장, 산업담당 부국장 등을 거쳐 편집국장을 역임한 뒤 2009년부터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겸 서울경제TV 사장을 겸임해왔다.

한국경제 발행인에 김기웅씨



한국경제신문은 3월 8일 정기주주총회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사장에 김기웅 전 한국경제 TV사장을 선임했다.

김기웅 사장은 한양대 신문학과를 졸

업하고 한국경제신문 산업부장, 광고국장, 편집국장 이사를 역임했다.

헤럴드경제 발행인에 유병창씨



헤럴드미디어는 3월 2일 새대표이사 사장 발행인에 유병창 전 포스코TCD대표 이사를 선임했다. 유사장은 서강대를 나와 포스코 위싱턴 사무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을 역임했다.

CBS노컷뉴스 사장에 이정희씨



CBS노컷뉴스는 지난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이정희(51)씨를 선임했다.이 사장은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8년 CBS 기자로 입사해 대전CBS 보도국장, 문화체육부장, 국제부장, 보도국장과 CBS노컷뉴스 편집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회우동정

(가나다순)

허왕후기념비건립 10주년기념식 참석



김성배(전 KBS 보도제작국장) 본회부회장=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조 김수로 왕후 허황옥 출생지인

인도 UP洲에서 열린 '허왕후 기념비 건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뉴델리 인도 북부 타지마할, 녹아원등을 탐방

현대시선 공모전 당선 시인 등단



김지용(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회우 = 최근 현대시선 문학작품 공모전에서 시 부문에 당선 돼 늦깎이 시인

으로 등단했다.

뉴데일리 이승만 연구소 공동대표



안병훈(전조선일보 대표이사·사진上)·인보길(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사진下)회우=인터넷



신문 뉴데일리 산하 이승만 연구소 공동대표로 지난 3월 9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1회

'大王광고에 팔리다' 출간



안평선(전 KBS 춘천방송총국장)회우= KBS사우회보에 연재했던 칼럼 '방송비평'을 묶어서 '大王광고에 팔리다'를 출간. 2000년대 초반 혼란기에

KBS방송의 흐름을 돌아볼 수 있는 기록으로 평가된다.

'제13회 관악대상' 수상



이상우(신아시아연구소장)회우=서울대 총동창회(회장 임광수·임광토건 회장)는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을

제13회 관악대상(참여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소장은 한림대 총장 등을 지내며 후학 양성에 헌신했고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통일·안보 환경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몽골 농업개발사업단 고문



제재형(자유대한신문 편집인) 본회 고문 = 지난 3월 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창립된 '동몽골 농업 개발사업단'의 고문으로 추대됐다. 한·몽골 양측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농토 확장, 인구분산, 식량안보기지 구축을 목표로 첫 단계 1억 평 규모의 '고려 농장'을 일구는 농축산물 증산 해외 프로젝트다.

세계평화지도자 세미나 참석



최귀조(평화언론포럼 상임부회장) 본회이사 = 오는 4월 6~11일 까지(5박6일)간 태국 방콕, 파티아에서 열리는 세계평화지도자 세미나 참석과 주변 4지역 문화역사탐방을 위해 6일 출국

안성열 회우 별세

안성열 회우가 지난 3월 16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안성열 회우는 1938년생으로 고려대 상대 상학과를 나와 61년 동아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내 디뎠다. 향



년 73세. 그 후 동아일보에서 편집부 정치부 외신부 기사를 거쳐 기획부 차장을 지냈고 민주일보 편집국장, 미디어 오늘 고문직을 역임했다.

언론사社友會 소식

경향신문

남한산성에서 2011년도 시산제

경향신문 사우회(회장 이형균) OB산악회는 지난 3월 5일 남한산성에서 시산제를 올렸다. 1996년 산악회 창립이후 99년 1월 17일 사패산에서의 첫 시산제를 시작으로 12번째로 올리는 이날 시산제에는 지용우(본회 논설위원) 이정세 강한필 정운종(본회 상임이사) 이상호(본회 회우) 김무부 김충한 산우 등 경향 OB산악회 역대 회장 전원과 조명동 김명수 최순열 여구만(본회 회우) 전철수 장 옥(본회회우) 박우학 강병국 이상범 임상학(본회회우) 강남기 김성모 유광선 임상묵 회우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산제를 마친 경향 산우들은 인근 음식점 석촌가든으로 자리를 옮겨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개설했다. 다음은 이날 개설했던 임원 명단이다. △회장 조명동 △부회장 장옥(본회회우) △감사 강병국 △총무 강남기 등반대장 유광선

서울신문

3월 15일 정기총회 열려

서울신문 사우회(회장 신우식·본회 고문)는 지난 3월 15일 이동화 서울신문 사장과 회우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별한 의안은 없었지만 산악회, 사우문고 등 사우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KBS

2억 6천여만 원 새해 예산 확정



KBS 사우회(회장 강대영·전 KBS 부사장·사진)는 지난 2월 15일 사우회 정기총회에서 임원진을 개설했다. 강대영 신

임회장은 이흥기(기자) 김승중(TV) 홍금표(R) 정근춘(기술) 전봉찬(경영) 회우등 5명의 직종별 부회장을 선임해 집행부를 구성했으며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한인성 김광일 두 감사도 총회의 인준을 거쳐 새로 취임했다. 사우회는 또 지난 3월 1일자로 회보 107호를 발행하고 사우회 예산으로 2억 6천 3백만 원을 확정했다. 이 예산은 지난해 보다 3.7% 늘어난 액수다.

중앙매스컴

발전기금 6천 20만원 확보

중앙매스컴 사우회(회장 김재봉)는 전자사우회보 즉 웹진을 상반기중에 발간할 계획이다. 새로 발간될 전자 사우회보에는 인쇄 사우회보의 기사량의 한계를 뛰어 넘어 사진과 그림 등 다양한 편집 자료를 이용해 사우회의 활동, 중앙일보의 움직임, 사우들의 동정 등 갖가지 생활정보가 반영될 예정이다. 중앙매스컴 사우회는 특히 작년 말 현재 6천 20여명의 발전기금을 확보했다. 8월 중엔 사우회 주소록도 발간할 예정이다.

연회비 납부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2012년 김기원 마권수 오건환
2011년 고두현 국기일 김경태 김기원 김길홍 김두근 김영대 김정삼 김 집 김한봉 나용경 남재희 마권수 박문송 박승채 박종서 서병주 손기상 손일근 안광식 안종우 오건환 오근영 우경식 유승택 윤기병 윤홍섭 은종일 이배영 이세환 이용권 이우진

이종준 이흥기 이형균 이학주 조천웅 지용우 최상목 한영섭 호천웅 황봉구 황선웅 정운택
2010 김영대 김지용 남재희 류무정 박문송 서병주 이흥기 지용우 호천웅
2009 김영대 박용운 호천웅
2008 박현태

전화번호 변경

김세경 회우 = 018-287-8800
김영대 회우 = 010-2292-5865
맹태균 회우 = 010-5485-5103
박경석 회우 = 010-5516-5784
여영무 회우 = 010-3896-6677
윤상철 회우 = 010-2018-3202
지정식 회우 = 010-5358-5859
정성진 회우 = 010-6234-6092
최금녀 회우 = 010-2247-0110
최서영 회우 = 010-2412-7241

회우 경조사

* 결혼 *

▲심의표 회우 = 4월 9일(토) 낮2시 한국프레스센터20층 웨딩홀(국제회의장)에서 아들 현민군 결혼

▲지정식 회우 = 3월 6일 12시 컨벤션 다이밍(구 마벨러스)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차녀 영주양 결혼

* 부음 *

▲임상학 회우 상배=3월 8일 부인 별세 삼성병원 장례식장. 발인 3월 10일

바로 잡습니다 - 3월호

▶ 5쪽 여영무 회우 기사 '국익정보 누출 고백'이 없다' 기사 말미에 '지위를 잃

회우저술 문고 보내주신 분

(2011년 3월 28일 현재 접수 순)

박 실 회우 : '증보 지구특과원-세계의 대사건을 파헤친 취재비화'(1987)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대사관'(1993)
장두원 회우 : '언론 그 일그러진 자화상'(2011)
인보길 회우 : '이승만 다시보기'(2011)
신명식 회우 : '신경식 회고록 자전적 에세이 '칠부능선엔 적이 없다'(2004)
최금녀 회우 : 시집 '큐피드의 독화살' (2007) '저 분홍빛 손들'(2006) '내 몸에 집을 짓는다'(2004) '가 본적 없는 길에 서서'(2001) 시선집 '최금녀의 시와 시세계(2008) 일본어 번역 시집 '그 섬에 가슴을 묻고'(2003) 영어번역 시집 '저 분홍빛 손들'(2006)
성재삼 회우 : '혼자 살려거든 태어나지 말아라' (2008) '성재삼의 체험적 세상읽기' (2008)
김 화 회우 : '이야기 한국영화사'(2001) '새로 쓴 한국영화전사'(2003)
김건이 회우 :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2004) '누구나 쉽게 깨닫는다'(2006)
황대연 회우 : '무차원의 존재'(2010)
이 형 회우 : '한국경제의 이해와 선택'(1988) '경제를 보는 눈'(2001) '장편정권과 민주당'(2005) '조병옥과 이기붕'(2002)

발전기금 감사합니다



지용우 논설위원(사진) 20만원
김귀제 원로회우 10만원

게 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가 누락.

▶ 17쪽 언론가 소식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 연임' 기사 중 김재철 사장의 고향은 경남 사천의 오식.

▶ 18쪽 회우 동정란 김준빈 회우 동정 중 미수 연은 산수 연, 사우회 소식란중 경향신문 사우회 회장은 이형균 본보 논설위원장으로 바로잡습니다.



당신과 SK텔레콤이 나누는 「꿈의 대화」

당신이 SK텔레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가 있는데
함께 완성할 친구가 필요하다고
그런 당신에게 SK텔레콤이 답합니다
우리의 T맵과 T스토어 기술,
플랫폼 기반기술들을 마음껏 활용해달라고
당신의 재능으로 우리 기술을 더 멋지게 완성해달라고

당신의 생각과 우리의 기술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모두를 위한 세상이 완성된다는 걸 잘 알기에
SK텔레콤은 재능 있는 누구에게나 말을 겁니다

서로의 가능성이 더해진 내일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



개방하고 협력하여 ICT산업의 선순환을 이루는 SK텔레콤 [상생혁신센터] <http://oic.tstore.co.kr>

SK텔레콤의 플랫폼 기반기술(위치기반·메시징·커머스·콘텐츠유통·소셜네트워크·모바일광고·B2B기반)을 나누는 이곳에서, 당신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보십시오